

한인뉴스

2016

7

VOL. 241

haninnewsinni@gmail.com

창간 20주년 기념 특대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S7 edge

Find beauty in the dark

[FAST AUTO FOCUS* & LOW LIGHT CAMERA**]

Focus on object quickly and accurately with dual pixel technology, or take brighter and clearer pictures in low lights with f1.7 lens technology. Our latest innovation allows you to capture beauty even in the unlikely condition.



More than a phone.

*With Dual pixel technology.
**With f1.7 lens technology.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MobileIndonesia](https://www.facebook.com/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https://twitter.com/Samsung_ID)



[Samsung_ID](https://www.instagram.com/Samsung_ID)



[Samsung Indonesia](https://www.youtube.com/Samsung Indonesia)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 출발 | 도착 | 편명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요일 | 기종 |
|------|------|-------|------|--------------------|-------|---------|
| 자카르타 | 서울 | KE628 | 2205 | 0705 ^{*)} | 매일 | 77W |
| 서울 | 자카르타 | KE627 | 1520 | 2010 | 매일 | 77W |
| 자카르타 | 서울 | KE626 | 0815 | 1735 | 월,목,일 | 330-200 |
| 서울 | 자카르타 | KE625 | 1850 | 2355 | 수,토,일 | 330-200 |

* 대한항공 발라-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Fabulous Eid

July



7월 18일 ~ 27일

GET CASHBACK
UP TO **IDR 350,000**

*200/500/7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IDR 100,000 추가 증정

*BNi은행 신용 카드 사용시 100만루피아 이상 구매시

ANNIE 뮤지컬 티켓 무료 증정

5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1매 증정

ANNIE 뮤지컬 노래 경진대회

7월 24일 | GF Main Atrium

ANNIE 뮤지컬: 8월 4일 ~ 14 일

Info: Ciputra Artpreneur
(021) 2988 9889



신규 오픈

G R O M
IL GELATO COME UNA VOLTA

이탈리안 정통 젤라또

COOLKIDS



유명 아동 패션 브랜드

REDSUN

떡볶이, 김밥 등 한국 음식 전문점



프리미엄 립 & 스테이크 전문점

스페셜 바자



- **Lovely Summer 슈즈 & 백**
18-31 July 2016 | GF
브랜드: 에코, 락포트, 알도, 닐라 앤소니 외
- **해외 패션 브랜드 바자**
27 June - 24 July 2016 | 3F Fun Atrium
브랜드: 컬럼비아, 라일 앤 스코트, 데시구엘 외
- **재 3회 메가 골프 바자**
19 July - 21 August 2016 | GF Event Atrium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미즈노, 캘빈클라인, 캘러웨이, 나이키 외

이벤트

GERMAN DMITRIEV

Mustafa (DEBU) Percussion

Featuring:
Various Artist
7 - 10 July 2016 | 3 PM | GF Main Atrium

- **VOI (보이스 오브 인도네시아) 공연**
3 & 6 July 2016 | 3 PM
- **라마단 재즈 페스티벌**
16 & 23 July 2016 | 7 PM
- **비트박스 포퍼먼스**
17 July 2016 | 5 PM

2016년 대상제품



세라믹 블루투스 스피커



ZEN & LOCK



ZIEN COOK



대한민국 신기술 혁신상 대상 7년 연속 수상, 국가품질대상 명품창출부문 대통령상 수상

세라믹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다, 친환경도자기 Saint James

-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TOP 브랜드에 생산, 수출하는 브랜드 Saint James
- 세계 최상급의 친환경원료 및 무연유약 사용으로 안심하고 사용하는 브랜드 Saint James
- 도자기 밀폐용기부터 세제 흡수율 없는 도자기 냄비까지 기능성도자기를 만나 볼 수 있는 Saint James

7년 연속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대상 수상제품

- 2010년 - 세계 최초 개발 성공, 김치를 더욱 맛있게 익게 하는 **대용량 김치 생생용기**
- 2011년 - 완벽한 밀폐는 물론, 보관 용기 및 도시락 사용이 가능한 **칸막이 도시락**
- 2012년 - 바쁜 현대인의 필수품, 식단 조절이 용이한 **웰빙반상(신개념 도자기 식판)**
- 2013년 - 세제를 흡수하지 않는 건강한 내열도자기냄비 **ZENCOOK(젠죽)**
- 2014년 - Silver 발열체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사용하기 편리한 **IH 티팟**
- 2015년 - 도자기 스크류 캡 제조방법으로 더욱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스크류 저장용기**
- 2016년 - KEAS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세라믹 블루투스 스피커**

2010년 대상수상제품
대용량 김치 생생용기



2011년 대상수상 제품
도자기 칸막이 도시락



2012년 대상수상 제품
웰빙반상(신개념 도자기 식판)



2013년 대상수상 제품
친환경 세라믹쿠커 ZEN COOK



2014년 대상수상 제품
IH 티팟



2015년 대상수상 제품
도자기 스크류 저장용기



ZEN 한국 수출전용공장 SAINT JAMES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Best Quality & Delivery



한인뉴스 창간20주년을 축하합니다!



MACHINE CAPACITY

Factory 1

- LDPE extruder 6 sets, emboss roller 3 sets
- sealing machine 7 sets
- HDPE extruder 5 sets, emboss rolle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4 colour 2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5 colour 1 set
- PP strapping band extruder 2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side seal machine 4 sets
- crusher machine 4 sets
- hanger machine 4 sets

Factory 2

- LDPE extruder 10 sets, emboss roller 5 sets
- sealing machine 10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4 sets
- flexo printing machine 2 colour 2 sets
- PP extruder 4 sets
- crusher machine 1 set
- side seal machine 5 sets
- hanger machine 5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roll bag machine 1 set
- HF PVC machine welding 5 sets
- corona treatment 3 sets
- slitting machine 1 set

PRODUCT

- polybag (LDPE, PP, HDPE), (5cm, 280cm width)
- all kinds of shopping bag 5 colours printing
- PVC bag
- garbage bag
- PP strapping band (PP band)
- OPP bag
- zipper bag
- emboss roll bag
- roll bag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MARKETING OFFICE

Kawasan Berikat Nusantara (KBN)
Jl. Sumatera Raya E-04, Cakung Cilincing Jakarta Utara
Telp : 62-21-440-3926 (hunting), fax : 62-21-440-3944

Email :

bhjang@indosat.net.id (Jang Bong Hee)
kenleejh@gmail.com (Lee Jo Hun)



PT. BOSUNG INDONESIA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한인뉴스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PT. TAEWON INDONESIA

PT. TAEWON INDONESIA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8984 1133/1134

미래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PT. KOMITRANDO-EMPORIO

한인뉴스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물류 운송과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HANINDO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SINCE 1993)

업무 안내

- 수출입 화물 해상, 항공 운송
- 수출입 화물 통관 (EDI ON - LINE) 및 내륙 운송
- PROJECT CARGO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 LCT / BARGE TRANSPORTATION
- 해외 이주 화물 (이삿짐) 운송 및 통관



LCT Transportation



BARGE Transportation



COLUMN Transportation
(L X W X H @ 52.0 X 2.1 X 2.1 M)



REACTOR Transportation
(L X W X H @ 35.0 X 7.95 X 8.45 M)

Granadi Bldg 7th Fl. South Wing, Jl.HR.Rasuna Said Kav 8-9,
Jakarta 12950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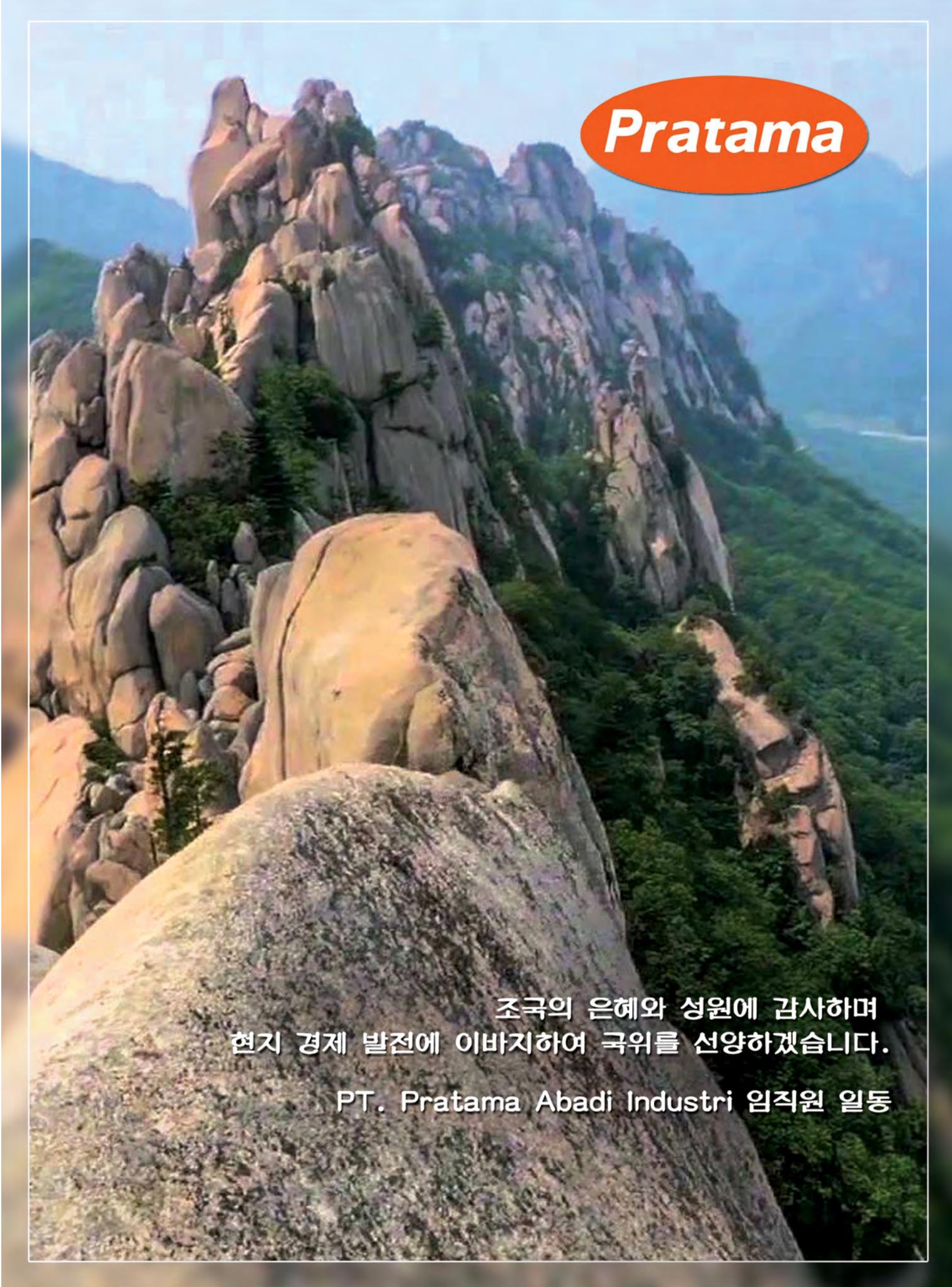
E-mail : hanindo@hanindo.net

Website : www.hanindoexpress.com

Telp : (62 21) 2525-123, Fax : (62-21) 2520-551, 2520-556

HP : 081-848-5570 (Mr. CHO) Hp : 0811-816-0627 (Mr. SHIN)

항상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Pratama

조국의 은혜와 성원에 감사하며
현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극위를 선양하겠습니다.

PT. Pratama Abadi Industri 임직원 일동



송금수수료

US\$20.⁰⁰ ONLY

KOREA

송금

신속 정확한 송금은
이제 BNI 은행을
이용하세요

BNI smart remittance

송금취급은행 BNI 은행 전국지점
송금 콜 센터 (021) 2994 6099

1500046
BNI Call



@BNI46



BNI

 BNI

Serving the Country, the Pride of the Nation

모든 한인들에게 존재의 빛으로

한인들의 꿈과 도약을 전하며
끊임없이 행복을 생성하는
타오르는 심지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염원해온 세월

모든 한인들에게 존재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찬란함으로
오늘, 여기 한인뉴스 20년을 맞이했네.

우리 모두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세
집념과 끈기로 힘차게 달려온 시간들이
열대의 눈부신 태양 아래
보람과 자긍심의 열매로 반짝이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나아가려 하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더 큰 기적을 꿈꾸면서
모두가 하나 된 문화예술의 에너지로
경제인들의 푸른 꿈을 복돋을 것이고
타국에서 희망의 삶을 이루는
한인들을 격려할 것이네

이 땅에서 열정과 노력을 다해
땀 흘리는 이들의 그리움으로
공유와 소통과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빛나는 기쁨이 되어
더 높게 더 멀리 아름답게 나아가세

푸르게 빛나는 적도의 별처럼
모든 한인들의 가슴에 존재의 빛이 되는
세계 중심의 한인 매거진이 되는 그날까지.

한인뉴스 20주년을 축하하며...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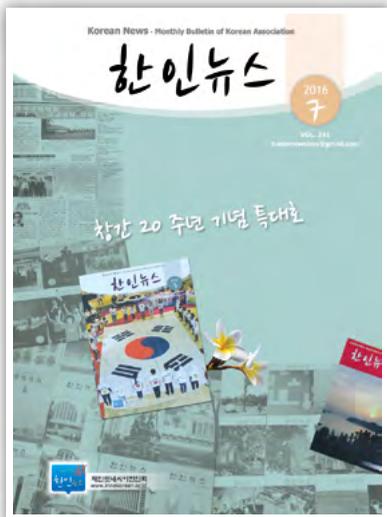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한인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창간 20주년 기념.....13

축시 <서미숙>

인사말 <양영연>

축사 <조태영>

한인뉴스에 바란다 <승은호, 송창근, 김승익,
박영수, 박현순, 최우호>

논설위원칼럼/뽀빠실라<김문환>.....28

신성철 칼럼/ 인도네시아 화인을

통한 현지 한인의 미래 조망(3).....31

2016 상반기 정기 이사회

‘르바란’입니다.
튀겨나가듯 일상을 벗어나보면
강요된 선택이란 생각에
내가 외국인인가! 다시 알게 됩니다.

2016년 7월,
하필이면 생일이 명절과 맞물린
스무 살의 한인뉴스를 바라봅니다.

외국에서 20년이란 세월을 지킨다는 것은
대견하기도 하고,
어쩌면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부끄럽습니다.

그러기에 돌아볼수록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감사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 | |
|-----------------------------------------|------------------------------------------|
| 이선진 전대사의 일기 제4화.....36 | 김중성의 생활법률/ 그것이궁금하다.....56 |
| 최진열의 '경제를 말한다'.....41 | 박상훈칼럼/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하게 살기4.....58 |
| 2016 코참 정기총회 | 2016년6월경제브리핑.....61 |
| 이민청, 체류증명서 단속 | 지상갤러리/ 호리 후미코<김현경>.....64 |
| [기업탐방] PT.Hankook Ceramic Indonesia..44 | 세계기네스북에 오른 빛나는 우리 문화재 <문화재 사랑>.....66 |
| 공감, 인도네시아/ 물소들의 일상 <김성월>48 | 7월의 행복에세이<김현숙>.....68 |
| 6.25 기념행사 | 법률해설/인도네시아민법(6)<이승민>.....70 |
| 집중! 이 사람/ 조규철 전편집인.....50 | 가상공간을 통해 확장되는 욕망<조홍길>.....72 |
| 1호선 사업 착공식 | 헤리티지소식 |
| 베스트 제너럴 인슈어런스 | JIKS 소식.....76 |
| 아름다운 나눔 | 생활정보 |
| 해양경찰 경비함정 3009함, 자카르타 방문 | |
| 동포 신변 안전 유의 | |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양영연 / 편집인 : 강희중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돕는 한인사회
서로 믿는 한인사회
발전 하는 한인사회

한인뉴스

발행인 : 송은호
편집인 : 전성호
발행처 : 인도네시아 한인회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KT-SEL
Tel 5252515 Fax 5212486

한국국제학교

내년

고교과정 신설



사각모자 인극대행과 전경 - 강당(왼쪽 건물)을 대강당으로 '복합' 예정

‘교사 신축키로’

한국국제학교는 내년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교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재단측에서는 “고교과정신설을 계기로 국제학교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실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체육 및 특별활동 공간을 대폭 늘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강당을 중,고교 교실로 개조하고 컴퓨터실, 어학실, 도서실, 과학실습실등의 기능 교실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것을 확대 보완키로

할 예정이다. 또 주차장 부지에 세워질 3층 규모의 복합건물은 실내 체육관과 특별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

야외수영장과 다용도 육의 체육공간을 마련키로 하여 한인자녀의 전인교육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기자

님 이시어

황 순경

님이시어
오늘도 칠판의 무르름으로 뒤덮인
죽국의 산이여
뛰어 노는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님이시어
상미의 이역에는
시절 피고지는 봉이 깨터락스 염여서
당신에게 비칠 너의 영혼을
송송이 맺는 담쟁이로 뒤어가고 있나?

님이시어
피다못애 예결안 희선지 위에
당신의 그 송고인 업을 담이
은누리를 뒤덮기 미시옵소서.

백두에서 인라까지
영봉과 영봉으로 이어내리는
거리의 경기를
저구름의 안미울인 이곳 인니까지
편이게 미시옵소서.

님이시어
당신의 영혼의 연인인 너는
삼백여순대섯날
밤마다 영혼의 고향으로 들이기
안인, 안인일 락름이옵니다.

지면안내

- 2면 인사말씀, 축하
- 3면 한인회 상반기 주요활동사항
- 4면 금년중 인니에 원조공여 검토
- 5면 건설한국 인니여까지
- 6면 외국인도 주택소유 가능
- 7면 발명계 현황과 전망
- 8면 인니에 문화 기행
- 9면 인니의 성장병 어린이 돕기
- 10면 JIS소식
- 11면 인니에 입학자로
- 12면 인니에 복소리 · 편지집기

제인니 상공 회의소 개설

-한국업체 권익보호에 앞장

지난 3월30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민행기 대사와 송은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인니 상공회의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 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진출업체들이 업종 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진출단체 성격에 지나지 않아 그 단점을 보완하고 회원사간에 경제 기업정보의 교환과 공공기관의 접촉창구역할을 하고 또한 한국업체 기업활동에 활력소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날 초대소장으로 취임한 유병문씨(현 한인회 상공분과 위원회 위원장)는 “예산과 조직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상공회의소 위상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현판식 참석자들과 유병문 초대소장

공로명 외무장관 인니방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및 확대외무장관회의 참석차

공로명 외무부장관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다. 제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FMC) 참석차 방문하는 공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가들과 아.태지역 안보문제 및 아세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등 제반협력관계 증진방안을 중점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니방문은 공외무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ARF에는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21개국

이 ASEAN FMC에는 아세안 10개국과

대사관 공

한인뉴스 창간2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인.의.창

비전과 더불어

권용현
(한국산업은행
자카르타 사무소장)
흔히 우리는 비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들은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비전이란 6년내지 10년후 장래의 그 조직의 이상을 그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그림을 실현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16 | 한인뉴스 2016년 7월호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스프루트” 비전에 힘입어 “미국민에게 미국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비전으로 고대 대통령은 “European House”를 제시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인도네시아도 “Repelita VI (6차 5개년 개발 계획)” 및 “PIP II (25년 장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비전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비전이 왜 필요할까.
요즘을 우리는 “불확정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한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처방은 어떤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보다 확실히 구체적으로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전 수립방식에 의한 비전 수립은 커뮤니케이션과 상호공감을 토대로 비전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 설정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최종목표에 기준을 둔 귀납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골프의 대가는 이렇게 말한다. 골프에서 퍼팅이란 공이 홀을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확신하며 궤도를 설정, 공에 힘을 가하여 공이 홀이 갖고있는 미지의 후인력에 의하여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비전도 이에 비유되지 않을까?

치밀한 계획과 성공에 대한 확신 또 조직원 전원이 적극 참여한다면 비전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는 월드컵 유치의 뉴스에 환희 하였으며 이제 “2002년 월드컵”이라는 비전의 실현에 임하고 있다. 필자가 봉직하는 산업은행도 “2004-50”이라는 비전을 이미 설정하고 2004년 세계 50대 은행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세계속의 한국 위상 정립에 일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우리들도 한인사회의 비전을 각자의 마음속에 그려보고 매일 매일의 생활을 영위한다면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는 세계인의 이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4천만불규모 대인디원조 공여검토

제4차 파리 CG1서 발표 인대사 한국수석대표로 참가

인대사 수석대표인 인도네시아에 4,000만 불 규모의 유상자금 공여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인대사 측은 지난 6.17-20 일 열린 파리에서 제4차 인도네시아 지원위원회(CG1)에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지원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인대사 수석대표는 대외경제협력기금(CO)으로 이 동적 지원금 4,000만 불 규모의 유상자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CG1에는 인도네시아의 3개 부처 장관과 3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인대사 수석대표는 대외경제협력기금(CO)으로 이 동적 지원금 4,000만 불 규모의 유상자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CG1에는 인도네시아의 3개 부처 장관과 3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인국, 인니 CN-235 8대 도입키로

방산분야까지 협력 확대 개시

인도네시아에서 8대 CN-235 헬기 도입키로 결정된 인도네시아 방산분야 협력 확대 개시

인도네시아에서 8대 CN-235 헬기 도입키로 결정된 인도네시아 방산분야 협력 확대 개시

건설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건설공사 건설회 협조 기대

건설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건설공사 건설회 협조 기대

COI 7

Consaltative Group for Indonesia의 약자로 인니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Consaltative Group for Indonesia의 약자로 인니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방문 한국인 금융 직원 115,000명 다녀가

인니방문 한국인 금융 직원 115,000명 다녀가

기업단신

대한항공

대한항공

PT. MIWON INDONESIA

수주 소식

PT. MIWON INDONESIA 수주 소식

L G 전자

전자부는 부활할까

L G 전자 전자부는 부활할까

이리언자아

업무 최대의 합법성상

이리언자아 업무 최대의 합법성상

인니 저세대 '인국일지' 붐 일어

한국관련 인니청소년대상 수필대회 개최

인니 저세대 '인국일지' 붐 일어



대한항공

자카르다 노선 5회주선

대한항공 자카르다 노선 5회주선

PT. MIWON INDONESIA

수주 소식

PT. MIWON INDONESIA 수주 소식

L G 전자

전자부는 부활할까

L G 전자 전자부는 부활할까

이리언자아

업무 최대의 합법성상

이리언자아 업무 최대의 합법성상

narae **나래여행** **나래여행**
Tour & Travel

R **RODEM TOUR**

WellBeingRice

有味 YU & MI

김준아저씨 고기

PT. KENLEE INDONESIA

PT. KOMITRANDO-EMPORIO

토박

PT. SRIJAYA SEGARA UTAMA

KORNET LOGISTICS
코넷 로지스틱스

KORINDO GROUP 회장 승은호

‘한인뉴스’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인 뉴스」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한인회와 더불어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Super Bone® 한인뉴스 2016년 7월호 SPOTEC®

(주) 한국세라믹 인도네시아 (주) 동조 인도네시아

서로 돕는 한인사회
서로 믿는 한인사회
발전 하는 한인사회

한인뉴스

발행인 : 송은호
편집인 : 천성호
발행처 : 재인니한인회
인쇄처 : CLEAN PACK INDOMAS



SUNJIN TEXTILE CO.



ARANG 22

Law Firm
INDOYANG & PARTNERS



PT. COSMOS INDO INK



PT. Big-Star International Trading



BNC CONSULTING



ATI
AGRI TRADING INVESTMENT

사랑해요!



다물 의 변 (多勿)

신상식 (한인문화원 원장)

한인뉴스

인.인.의 장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옛날에는 두 18 일 한인뉴스 2016년 7월호 운 풍속들이 있었다. 이웃간의 상부상조와 협동을 목적으로 한 우리 전통의 풍습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다물이란 이세는 잊혀진 옛 고어(古語)로써 "옛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옛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나 이적도 백 여 민병의 같은 빛줄 한민족이 살고 있는 북민주 빌판, 그곳도 우리가 다물 해야 할 대상이다.

서로 듣는 한인사회
서로 믿는 한인사회
발전 하는 한인사회

한인뉴스

발행인 : 승은호
편집인 : 천성호
발행처 : 재인한인회
인쇄처 : CLEAN PACK INDONESIA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SELATAN INDONESIA TEL 5212515, 5272054 FAX. 5212486, 5272054

국세청, 동남아 4개국 순회 간담회 개최

- 해당지역 진출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으로

최근 수년간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 및 중국으로의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해당 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세제, 세정 설명과 함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및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동남아 4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의 하와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첫 방문지로 8월 29일 16시에 HERISON 호텔(안출산제)에서 각 기업체 대표 및 경리 책임자 8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속에 시종일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동남아 순회 간담회 개최를 환영하는 한편,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나 양국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위배되는 과세 처우가 있을 시 즉각 상호 협의의 절차를 거쳐 시정하기로 하였다. (관련기사 4면 참조)

- 상공분과 위원회

지면안내

- 1면 인사소식
- 3면 다이아몬드 「영국의 정세」
- 4면 파란마니에 안복기증
- 5면 기업단신
- 6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 7면 인니 한인사회의 발자취
- 8면 생활법률 「알고이행합니다」
- 9면 부인회소식
- 10면 건설 20년
- 11면 JKIS 견학문
- 12면 개시판, 복소리, 독자투고

한인뉴스 창간20주년을 축하합니다

woori 우리컨설팅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THE KINGDOM BUFFET & SHABU-SHABU

CHUNG HAE

변호사 이 승 민
yisngmin@gmail.com, 0816-1911-245

Since 1980

MGH KOREAN SUPERMARKET & DISTRIBUTOR
PT. KOINBUMI (무궁화유통)
Tel : (021) 722-2214

BNT BUMI TOUR
PT. KOINBUMI WISATA
Tel : (021) 7279-0011

PT. HYUNDAI FORKLIFT INDONESIA
Hyundai Official Agent

Chum-Churum

Red & White WINE AND SPIRITS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상공분과 위원회
현지 한국투자 업체의 품질 경영 및 해외투자업체 경영의 KEY POINT, 기
생산성
와 ISO
는 10%
HORISON
키로 했
국제인
중추진

현지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데 반해 한국인은 견속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또한 스스로 자인한다.

구 많은 대국이라는 공지와 마음의 풍요 가서는 추방까지 이어지는 추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인에게들은 물론 이나라 못하지 않음을 명심하자.



한인뉴스 창간 20주년 인사말



양 영 연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 한인뉴스 발행인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성원속에 우리 한인뉴스가 어느덧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창간 초기와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어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처음 창간호를 찍어내던 그 때 그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달 한 달 한인뉴스를 채워주었던 집필진께 깊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으로서 지난 20년간 한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한인뉴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일반인 기자들의 다양한 기사 제공으로 동포사회의 이모저모를 소개했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한인 사회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칼럼, 실생활에 필요한 인도네시아어 강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수필,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칼럼등 일일이 다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인뉴스는 더욱 다양화된 콘텐츠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발행부수를 증가함으로써 구독 기회를 향상 시킬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E-Magazine을 확대하여 한인뉴스의 글로벌화에 힘쓰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지금의 한인뉴스가 있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베풀어 주신 승은호 초대 발행인, 신기엽 전 발행인, 천성호 전 편집인, 김우철 전 편집인, 박인철 전 편집인 그리고 조규철 전 편집인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미담을 만드셔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한인뉴스에 많이 기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뉴스 창간 20주년 축하



조 태 영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한인뉴스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한인뉴스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과 인도네시아 전역의 애독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인뉴스는 1996년 창간 이래, 한인 동포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화, 경제, 법률, 회계 등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간호부터 결호 없이 발행되며 전세계 한인사회에 자랑할만한 모범으로 자리 잡았고, 동포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우리 한인 동포들이 현지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한 동반자이자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각 지역 한인회와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 동남아시아 각 국과 한국의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도서관까지 발송되고, 온라인 매거진으로 출판되며 전세계로 소식으로 전하는 글로벌 매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사회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포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창간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함께 한인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뉴스에 바란다



승 은 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회장 /
전 한인뉴스 발행인



매달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우리를 찾아오는 한인뉴스가 어느덧 창간 20주년이 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을 발행인의 위치에 있던 저로서는 정말 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인뉴스는 지난 20년간 정치, 경제 등 굵직한 분야의 정보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언어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까지 아우르는 현재는 명실공히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정론지로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함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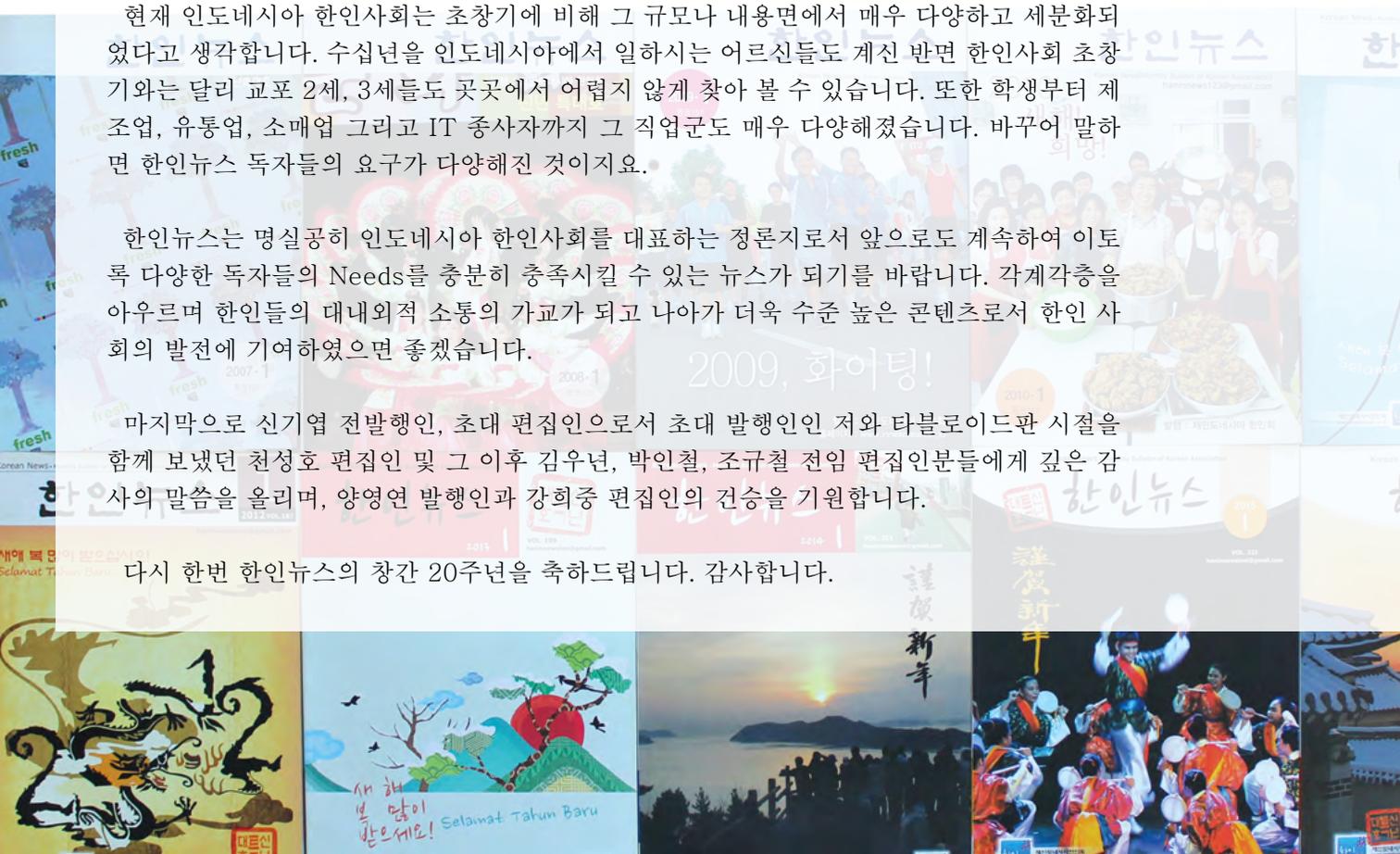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한인뉴스에 실리는 모든 콘텐츠들이 직접 현장에서의 취재를 통하여 작성되었기에 다른 어떠한 신문, 잡지보다도 더욱 한인사회만의 다양하고 특수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모든 한인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초창기에 비해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을 인도네시아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신 반면 한인사회 초창기와는 달리 교포 2세, 3세들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터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 그리고 IT 종사자까지 그 직업군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인뉴스 독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진 것이지요.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토록 다양한 독자들의 Needs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계각층을 아우르며 한인들의 대내외적 소통의 가교가 되고 나아가 더욱 수준 높은 콘텐츠로서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업 전발행인, 초대 편집인으로서 초대 발행인인 저와 타블로이드판 시절을 함께 보냈던 천성호 편집인 및 그 이후 김우년, 박인철, 조규철 전임 편집인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양영연 발행인과 강희중 편집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인뉴스의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인뉴스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인뉴스는 지난 20년간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의 현안을 밝히고 한인 동포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한인사회의 나침반이자 한인 동포의 친구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법률, 노무, 회계 등 주제별로 다양한 정보를 한인사회에 제공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오신 한인뉴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언론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인뉴스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언론의 중립성을 지켜가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밝히는 햇불로 크게 도약하고 발전을 거듭하는 한인뉴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인뉴스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Go Global, Kocham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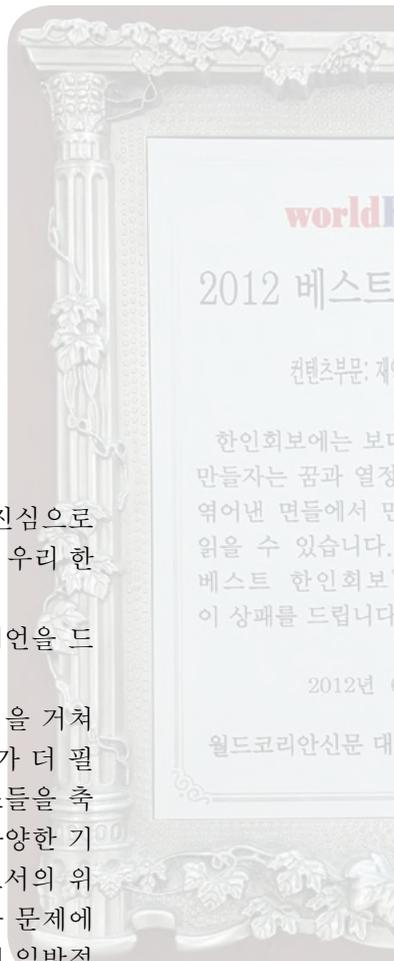
긍정의 변화를 이끄는 매거진으로 거듭나기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한인뉴스』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제 소년기를 벗어나 혈기왕성한 청년기로 들어서는 만큼 우리 한인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좋은 활력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멋진 모습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미흡하나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뉴스』는 월간지입니다. 따라서 일간지와 달리 일정 기간의 기획과정을 거쳐 책자형태로 발간된다는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려는 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한 달 동안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루었던 뉴스들을 축약해서 담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한인사회의 이슈 등을 다루는 다양한 기획물도 다룸으로써 한인사회의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시사교양지로서의 위상도 더 공고히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인사회에서 감론을박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양측 전문가나 관련자의 입장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목소리가 큰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닌 균형 잡힌 정보를 한인사회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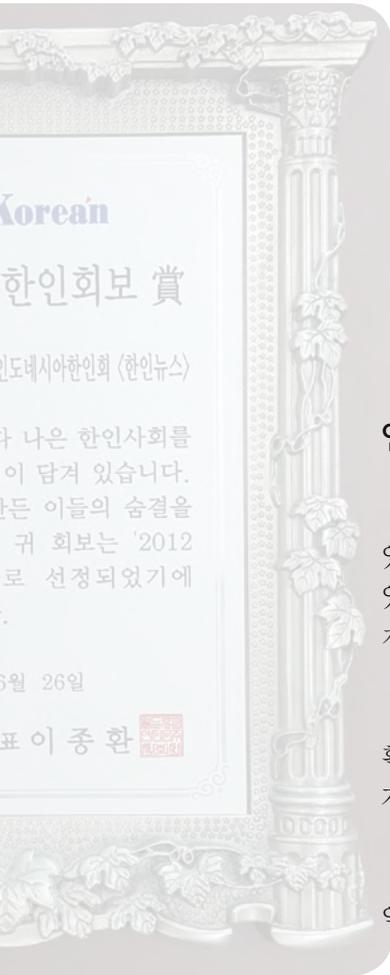
더 욕심내다면 적절한 창구를 통해 한인사회 구성원들의 주된 궁금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뒤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등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읽는 즐거움을 주신 한인뉴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멋진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김 승 익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장





인니 한인사회의 길잡이, 한인뉴스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발전에 선도하는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인뉴스가 보여준 한인사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인뉴스를 인도네시아 최고 정론지로 이끌어 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인사회는 창간 이후 특유의 전문성과 취재력을 바탕으로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곳곳의 한인들의 소식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 대내외적 소통의 가교 역할 및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설 뿐 아니라 전 한인사회의 정보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소식지 한인뉴스가 20살 청년의 나이가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시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한인들의 소리에 더욱더 애정을 갖고 귀 기울이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고생하는 한인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하며 한인뉴스의 무한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인뉴스에 바란다

박 현 순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부회장/
코원회장



한인뉴스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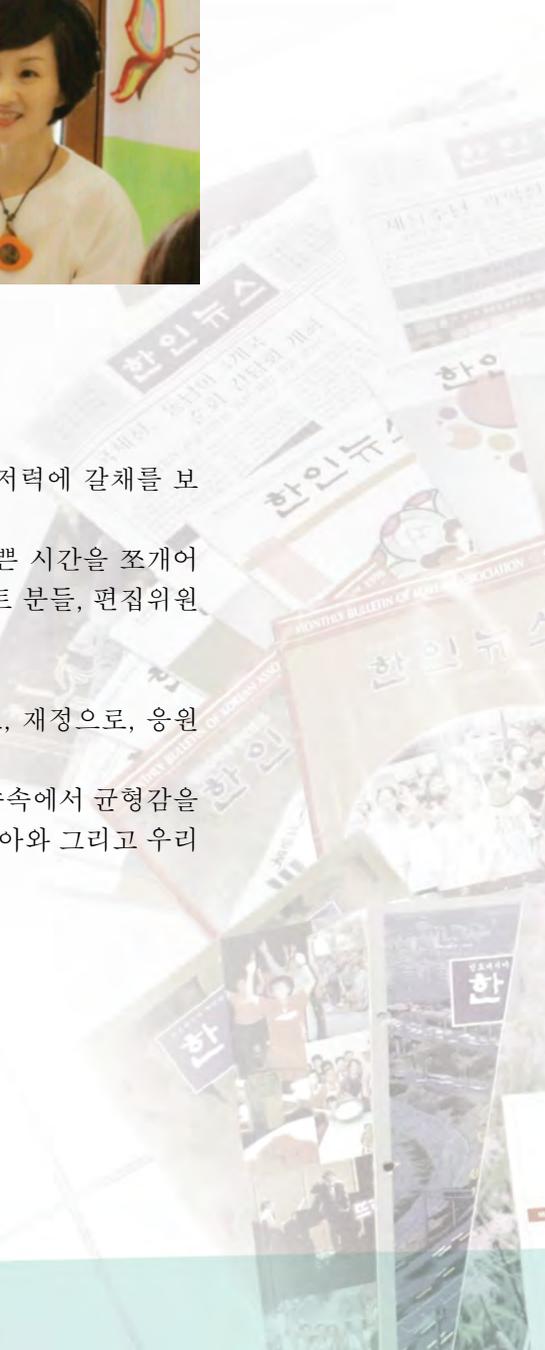
수많은 기대와 부담속에서 살뜰하게 성장해 온 저력에 갈채를 보냅니다.

한인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력은 물론,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동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칼럼니스트 분들, 편집위원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권, 한 권의 한인뉴스가 나오기까지 시간으로, 재정으로, 응원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러하셨듯이, 난립하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균형감을 잃지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를 기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호
BINUS UNIVERSITY 학생



한인뉴스와 함께한 20년

고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 거리의 인도네시아 땅. 이 곳에 살고 있는, 또는 살았던 수 많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청지기가 되어준 오랜 친구의 스무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또 매월 발간되는 한인뉴스가 만들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인들의 삶을 살피고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생생한 이야기로 만들어 전해주시는 한인뉴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인뉴스의 장점은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많은 기사속에 녹아 있습니다. 3.1절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귀여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자카르타 시내를 붉은 물결로 물들여 눈가가 촉촉해지는 감격, 인도네시아 곳곳을 다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을 통한 즐거움과 설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기업들의 소식과 한.인니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느끼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

읽고나면 항상 다음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재밌는 한인뉴스. 하지만 아직도 자카르타 외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한인뉴스를 접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한인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낯선땅에서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한인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읽는 즐거움을 주는 한인뉴스가 되길 바래 봅니다.

다시 한번 한인뉴스 발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진설명; 1945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독립준비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가 민회건물(현재 뽀짜실라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다.

뽀짜실라 (Pancasila)

김문환/논설위원

메가와띠 집정 시절 매년 6월 2일만 되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전날 열린 뽀짜실라 기념행사에 관한 동정과 더불어 ‘뽀짜실라’를 잉태시킨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의 이미지를 투영시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금년에도 본 행사는 어김없이 메가와띠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협의회(MPR) 주관으로 반둥에서 열렸다. 특히 금년에는 조꼬위 대통령이 큰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은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조꼬위 대통령은 치사에서 내년부터 6월 1일을 ‘뽀짜실라 탄생일’로 기념하고 국경일로 선포한다는 중대 발표를 해 버린 것이다. 언론은 메가와띠가 ‘숙원’을 풀었다는 부채를 달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렇다면 이토록 조꼬위 대통령이 메가와띠 총재에게 통 큰 선물을 안기고, 투쟁민주당

은 6월 1일에 집착하며 6월 한 달을 아예 ‘붕 가르노의 달’로 제정하여 사회분위기를 띄우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가미가제 자폭특공대까지 등장시켜 결전을 벌인 ‘필리핀해전’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제국은 패전을 기정사실화하게 되면서, 종전 후 점령지에서 자국민의 안전귀환을 염두에 두고 유화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석유, 고무 등 군수물자와 노무자 공급기지로 삼아왔던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그간 ‘독립불허’ 방침을 고수하여 왔으나 이젠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적절한 명분에 췌어 맞추기 위해 일왕의 생일인 1945년 4월 29일 독립준비조사위원회(BPUPKI) 62명의 정식회원과 7명의 특별회원

의 명단이 발표된다. 그리고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국가이념설정’이라는 의제를 놓고 세 명의 발언자가 돌아가며 주제발표를 하게 되는데, 5월 29일 저명한 문학가이며 역사학자인 무하맛 야민, 5월 31일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출신의 법학자인 수뽀모 교수에 이어 마지막 날인 6월 1일엔 수카르노가 발표자로 나선다. 수카르노는 5대이념인 뽀짜실라(Pancasila)를 제1안, 3대이념(Tri Sila)을 제2안, 그리고 상부상조(Gotong Royong)정신을 3안으로 내세우듯 다양한 견적을 꺼내 든다. 회기는 종료되었지만 안건에 대한 후속처리를 위해 민족주의자 4명, 이슬람 종교계 인사 4명으로 균형을 맞춘 ‘9인 소위원회(Panitia Sembilan)’가 결성되어 6월 22일 수카르노를 비롯한 3인이 발표한 제안을 기본골격으로 삼아 5개항의 국가이념이 정립되니, 이를 ‘자카르타 헌장(Piagam Jakarta)’이라 부르게 된다.

나가사키에 두번째 원폭이 투하된 8월 9일 일본군정감부 당국은 기존의 독립준비조사위원회를 대체하여, 21명의 친일인사로 정비된 독립준비위원회(PPKI)로 옷을 갈아 입힌다. 위원장엔 수카르노, 부위원장엔 핫따가 추대되었다. 그러나 첫 회의가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던 8월 16일 새벽 4시, 사이공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산악지역인 달랏(Dalat)에 은신하고 있던 남방총군사령관 데라우치 원수(元帥)의 초청을 받아 면담을 마치고 이틀 전 꼬마요란 공항을 통해 귀국한 수카르노, 핫따는 급진적인 청년그룹에 의해 서부자바 까라왕 근처 령아스덴글록(Rengasdengklok) 조국방위대(PETA) 병영으로 납치된다. 긴박한 대치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불상사를 모면한 수카르노, 핫따는 8월 16일 밤 통행금지 시간을 뚫고 자카르타로 귀가하여 ‘이맘 본줄가 1번지’에 위치한 해군무관 마에다 다다시 제독의 사저를 빌어 청년그룹의 감시 속에 밤을 세워가며 단 두 문장에 불과한 선언서 초안작업을 끝내게 된다. 독립선언장소를 놓고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까다 경기장(현 모나스 광장 남쪽지역)에서 큰 판을 벌이

자는 청년그룹의 주장에 반해, 일본군과의 충돌을 우려한 원로그룹들의 설득에 따라, 결국 8월 17일 오전 10시에 수카르노의 자택 마당에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다. 다음날인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었으나 자카르타 헌장 5개 항목 중 제1조인 “이슬람교도에 대해 이슬람 율법을 의무화한다 (Ketuhanan dengan kewajiban menjalankan syariat Islam bagi pemeluk-pemeluknya)”는 조항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비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동부지역 대표들의 탈퇴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술라웨시 마나도 출신인 마라미스(Maramis)위원이 제안한 중재안을 핫따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일신에 대한 믿음(Ketuhanan Yang Maha Esa)’으로 수정하여 이를 헌법 전문으로 채택한다. 이후 ‘신질서 시대(Orde Baru)’를 표방한 수하르토 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수카르노의 잔영을 지우기 위해 수카르노와 직결되는 ‘6월 1일’을 애써 외면한 채, 대신 1965년 공산쿠데타군에 의해 육군수뇌부의 6명의 장성과 1명의 위관급 장교가 납치 살해된 10월 1일을 ‘뽀짜실라 성일(Hari Kesaktian Pancasila)’로 기념하여 왔다.

아국 공관장은 부임한지 채 1년도 되기 전에 벌써 공개석상에서 인도네시아 국민가인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Satu Nusa Satu Bangsa)’을 완창하여 놀라움을 안기는가 하면, 고찰한대로 민족주의진영과 이슬람계의 화합의 산물인 뽀짜실라 5개항을 막힘 없이 암송하여 파티에 참석한 외교사절은 물론 현지인들의 마음까지도 들썩이게 한 것은, 연초에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주한 스웨덴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어로 유창하게 ‘애국가’를 따라 불러 뉴스거리가 된 것과 일맥 상통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주변에선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논평을 달았으니, 아국 공관장의 비범한 이벤트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친밀감을 전달한 것”으로 받아 주었을 것이다.

인프라건설에 사활을 건 조꼬위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자본력을 앞세운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독무대를 이루자, ‘강대국 리그’라도 관전하듯, 우리 한인사회는 때로는 착잡한 심정 금할 길도 없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게 되면 일면 수공의 고개를 떨구게 된다. 인도네시아 화교이주 역사는 수백 년을 헤아리며, 사무라이 전국시대부터 인연을 맺고 75년 전엔 무력으로 이곳에 군림하며 구석구석을 진단해 놓았던 일본과의 특수관계를 애써 도외시 할 순 없는 노릇이다.

한편 1920년대 이래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의 중주국으로서의 위세를 부리며 1961년 1월 흐루시초프가 자카르타를 방문하면서 2억 5천만불의 차관을 제공하여 그 다음해 열린 아시안게임을 위해 스나얀 지역에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주경기장을 지을 수 있었으며, 서부 이리안(현 파푸아) 군사작전을 위해 4억 5천만불에 상당하는 신형군함과 군수물자를 지원하였던 구소련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할 리는 없

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쥘레곤 끄라까따우-포스코 일관제철소의 투자금액 30억불의 4배가 넘는 120억~140억불 규모로 동부자와 뚜반(Tuban)에 정유공장을 건설한다고 러시아 국영 오일회사의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들락거리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선진국들의 이권각축장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그들을 따라잡겠다고 아국 공관장이 용기를 내어 ‘빤짜실라’를 외우며 조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노심초사하는가 하면, 6월 라마단 계절을 맞아 소속 직원들과 함께 벌써 10년째 금식의식에 동참하고 있는 보고르 소재 모 한인기업 사업주의 ‘감성경영’은 오아시스적인 뉴스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카르타주 시공사 (PT.Jakarta Propertindo)와의 합작사업으로 자카르타 경전철(LRT) 1호선 1단계 사업을 6월 22일 착공한 것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소중한기 이를 데 없으며, 이를 동심원의 중심으로 삼아 한인기업체들의 영역이 더 큰 원형을 그리며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동포안내문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9조에 따르면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입 물품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직접운송원칙)

만일 제3국을 경유할 경우(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9조는 제3국을 경유했을 지라도 직접운송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통선하증권, 비조작원산지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운송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한-아세안 FTA 규정을 보다 정확히 집행하고 있어 한인 기업인들의 주의가 요청됩니다.

앞으로 한-아세안 FTA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노선을 이용하시는 한인기업인들께서는 사전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선사 또는 한국의 세관 수출입 지원센터(서울세관, 부산세관 등)에 문의하셔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인도네시아 화인을 통한 현지 한인의 미래 조망(3)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에는 차이나타운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한인타운이라 불릴만한 곳이 자카르타와 주변지역에 여러 곳 있다. 이역만리에서 서로 의지하며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곳으로 자카르타 남부 잘란 스나얀과 위자야그랜드센터 주변 그리고 자카르타 서부 외곽의 땅그랑 루꼬삐낭시아 상업단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하겠지만 또다른 일부는 화인들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코리아타운을 만들면서 대대손손 삶을 이어갈 것이다.

화인의 인도네시아 이민사는 한인보다 600년 이상 앞서고 인구나 경제 등의 규모 면에서도 한국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중국과 화인과의 관계, 인도네시아와 화인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화인공동체 내부의 세대갈등과 신규 화인 간의 관계 등 당면한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글을 계속하기에 앞서 여러 책자와 언론보도를 참고로 용어를 정의하겠다. 일반적으로 ‘화교’는 중국국적 소지자만으로 한정하고, ‘화인’은 중국 문화와 중국인 혈통을 보존하고 있는 비(非)중국국민을 가리키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모두 ‘화인’로 통칭한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한인은 재외한인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국외한인으로 분류하지만, 이 글에서는 모두 ‘한인’으로 통칭한다. 화상과 한상은 각각 해외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화인과 한인을 일컫는다.



인도네시아 화인들이 현지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들만의 엄격한 규범이 있었다. 이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정하고 배타적일 만큼 혈연과 친척, 동향에 대한 철저한 의리를 지켜왔다. 이들은 모국어를 쓰며 모든 상거래는 현금 거래를 할 만큼 신용을 중시한다.

화인과 토착민 갈등 이유 . 경제 격차, 종교문화 차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토착민과 화인과의 주요 갈등 배경으로 경제적 격차를 꼽을 수 있다. 화인의 경제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수치화한다면, 흔히 인도네시아 부(富)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지난 수백년 동안 화인 대부분은 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상품유통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러한 유통 분야의 유리한 지위를 활용해 금융업이나 제조업 분야에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와 문화적인 차이로 토착민과 화인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은 주로 이슬람신자이고, 중국인들은 유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의 신자가 많아 서로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강대국이자 동남아의 인접국으로서 아태지역 특히, 동남아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냉전시대에 주춤한 듯하다가 최근 다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중국의 팽창이 반(反)화인 정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동남아 화인들의 중국투자를 견인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로부터 화인들의 정체성과 정치적 충성도에 있어 갖가지 우려와 의문을 사고 있다.

1998년 5월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무너졌을 때 화인을 표적으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됐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직후 실업률이 치솟고 가뭄과 산불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인도네시아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다. 수하르토를 둘러싼 일부 군부세력들은 갈등을 봉합하고자 반화인 정서를 활용해 대규모 시위를 기획하고 부추겼다. 화교들은 또다시 지위지배 않는 큰 상처를 입었다.

1998년 폭동 이후 인도네시아 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1998년 폭동을 겪은 후 자본을 대대적으로 해외로 옮겼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화인 자본 유출로 큰 타격을 받았다.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이어지면서 독재권력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유교와 중국어 교육을 허용하고 중국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정책을 폈고 무국적 상태의 화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1997년 아세안 경제위기와 1998년 폭동 그리고 정권 교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화인들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인도네시아가 개혁시대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이룸에 따라 토착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화인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졌다. 다원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종족간의 종교적 충돌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종족간의 화해가 국가 정치·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인에 대한 각종 호의적인 조치를 앞다투어 발표했다.

중국의 성장은 인도네시아 화인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됐다. 반면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는 화인의 역할이 컸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자 가장 먼저 중국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다름 아닌 화인의 자본이었다. 화인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해외시장 정보에 무지했던 중국 국내기업을 해외시장과 연결시켰다. 중국이 외국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화인의 탁월한 역할이 있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교역을 위해 화인과 화상들을 적극 활용했다. 압두라만 와히(일명 구수두르) 정부는 켄기 안키 경제조정장관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는 마리 엘카 빵에스뚜 무역장관 등을 중용했다.

인도네시아 한인의 과제와 도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인들은 수백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고, 토착민과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자 지금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이야기를 하겠다. 이 글의 목적이 먼저 온 화인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으니까. 인도네시아 한인들도 다른 한인들과의 관계, 토착민과의 관계, 본국 정부와의 관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방향잡기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을 끊임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도처에서 어렵지 않게 한인들을 만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한인이 진출한지 50여 년이 지났고,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4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사람은 훨씬 많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상호 방문객이 2015년에 60만여명을 기록했고 앞으로 5년 이내에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은 1968년이다. 대한민국 해외투자기업 1호인 한국남방개발(코테코)이 남부 깔리만판에 원목사업으로

진출했다. 뒤를 이어 코린도가 원목사업에 진출해 합판, 제지, 오일팜 농장, 중공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한상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어 건설, 조미료, 신발, 봉제, 전자, 중화학공업, 유통과 금융 등 전 산업 분야가 진출해 자리잡고 있다.

올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많이 회자된 내용은 노동집약산업의 중부자바 이전과 비자 취득의 어려움이었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저임금 노동집약 업종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됐다. 또 인도네시아 당국이 외국인 체류허가와 세무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데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장기 침체를 보임에 따라 사업을 접고 귀국하는 한인도 증가했다.

지난 50여년 간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공동체는 꾸준히 규모가 커졌다. 많은 한인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쳐갔고 지금도 살고 있다. 크고 작은 기업이 생겨났고 이 중에는 탄탄하게 자리잡은 기업이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업도 있다. 인도네시아인과 어울려 살면서 경제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본국과의 관계도 서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언어와 현지문화를 익혀서 토착민과 조화롭게 생활하며 장기적으로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토착민과 반목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현지 문화를 잘 알아야 두려움 없이 현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토착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현지 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다. 토착민 부자들은 명절이 되면 형편에 맞게 소나 염소를 잡아서 동네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금식월인 라마단에는 부까뿌아사(금식 후 만찬) 때 무료로 밥을 나눠준다. 르바란(이들피트리)에 잔치를 벌이고 서민들에게 희사한다. 이슬람교에는 ‘자캇’이라는 자선헌금이 있어,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한인들에게는 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화인의 예에서 보듯이 본국과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관계, 본국의 국제적 지위 등이 해외에 있는 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한류의 부상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인들을 다시 보게 했고, 현지 우리기업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해외 한인들은 본국 정부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다. 한상 기업은 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자본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한인기업이 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인이 어려움 없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재외동포는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중국의 화인은 4,500만 명 정도이니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화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규모다. 하지만 화인은 중국 13억 인구 중 겨우 3% 남짓하다. 그러나 남북한 총인구 대비 재외동포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크다. 남북한 인구를 7천만 명 정도로 생각할 때 재외동포의 비중은 거의 10%에 육박한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인구가 해외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6월 14일, 리스칼튼 호텔에서 ‘한인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 및 ‘고 김재유 명예고문님 공로패 추서식’을 개최했다.

이사회에 앞서 1부 순서로 ‘고 김재유 명예고문님 공로패 추서식’을 가졌다.

한인회 수석부회장, 상공회의소고문 등 한인 사회 여러 단체에서 활약하시던 중 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에 세상을 떠난 김재유 명예고문님께 공로패를 올리며 고인을 기리는 시간이었다.

추서식에서 42년 세월동안 봉사와 헌신으로 재인도네시아한인회를 이끄시며 애정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고 견인 해주신 고문님께 감사드리며 존경과 석별의 마음을 담아 고인의 차남 김육찬 한인회 이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2부 2016 상반기 정기 이사회에서는 한인회의 명예 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인사, 의안심의, 폐회 순으로 이어졌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양영연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짧은 6개월간 목표로 삼았던 일들을 추진하면서 무리 없고 잡음 없이 진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때로는 속도를 줄이고 귀를





열어 뒤에서 하는 말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인회 주요활동과 결산보고,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총연합회라 칭하고 지역한인회와 연합하기로 하였고, 법인회원에 관한 안건 사항은 하반기 총회에서 진행 결과를 전달하고 차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좀 더 심도 깊게 다루기로 했다.

조태영대사는 축사를 통해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보기도문 모범적인 단체이다. 대사관은 항상 열려있으니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나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여러 의견이 개진된 이사회를 마치고 만찬을 즐기며 화합의 장이 마무리 되었다.

이 날, 한인회가 준비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안내 책자도 배포하였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이번 제 5대 한인회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인회가 되어 위해 정립해야 사안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자, 한인동포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발로 뛰는 한인회가 되리라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제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영역을 넓혀 현지사회와도 폭 넓은 교류를 확대시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대사일기 제4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도네시아 방문(2006.12)”



한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나는 2006년 정상 방문을 준비하면서, 이 방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서 어떠한 성격이나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고민하였다.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30여 년 동안 국제 정세 및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냉전체제 하에서는 공산주의의 확산 저지라는 공통의 관심 속에서 협력하였다. 그러나 냉전 붕괴 후에는 한국의 민주화와 대외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본격화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통합)을 증진 방안이 양국 간 주요 관심의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인도네시아는 32년 수하르토 장기 집권이 종식을 고하고 정치적 혼란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혼란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바뀌고 국제 테러, 민주화 및 거

리 테모, 노동 분쟁이 연일 계속되고 이를 견디다 못한 많은 외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철수하였다. 우리 기업들 사정도 비슷하였다. 대기업들은 임원급 지사장이 과장급으로 바뀌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1-2만 명의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하던 노동 집약적 중소기업들도 노동 쟁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반도주하는 업체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었다. 우리 언론은 이 나라의 정국 불안정, 테러, 자연 재해 등 사건적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내가 부임한 시점은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정국의 불안정이 2004.10 SBY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차츰 안정기로 접어들던 때였다. 부임하여 7-8개월 관찰한 결과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이 있으나 문제들이 나빠지기보다는 개선, 진전되는 방향으

로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 SBY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었다. 이러한 주재국 평가를 토대로, 나는 양국 관계가 경제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들이 남보다 먼저 들어오거나, 돌아 올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선두에 서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정상 방문이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인도네시아의 장래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표방하는 최선의 도구(tool)라고 생각하였다. (사진: 2006.4 교민 언론 “한 타임즈”에 필자 기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2006.1.23.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SBY를 예방하였다. SBY는 처음 만난 한국 주요 각료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방산협력과 남북한 문제에 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SBY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Korea-Indonesia relations should grow into the level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정상 교환 방문을 통하여 기술, 경제, 관광, 문화, 교육, 무역, 투자 및 방산협력 문제 등 여러 방면의 협력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양국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협의되어 정상 방문 계기에 MOU라도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를 언급하였는지 모르나, 나는 양국 관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 적절한 용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쓰는 사람이나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경제교류 중심의 국가 관계보다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국가 관계로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국방 협력까지 가능한 단계의 양국관계이다.

나는 그 날의 일기에 SBY의 언급 내용을 기록하면서 strategic partnership 이라는 용어에 밑줄을 그었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미국, 중국, 호주 등 5-6 개 주요국들과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협력할 일이 많은 나라와 공동위원회(JC)를 설치하여 장관급, 실무급에서 자주 만나 협의, 협력할 수 있는 정례화하기를 원하였다. 호주, 일본과 JC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SBY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JC 설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 동남아 여러 나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GDP)가 아세안 10 개국을 합한 것과 비슷하였고, 햇볕 정책 및 6 자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고 있는, 즉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주었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대통령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에 의한 불법행위마저 유야무야로 끝나는 현실과 대조적이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즉 “小 強國” 한국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발언이었다. 대사로서 주재국 대통령이 먼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의를 예상롭게 넘길 수가 없다.

그러나 윤 장관의 대통령 예방 시 인도네시아 측 배석인사는 국방부 장관이며, 외교부 인사의 배석이 없었다. 면담 내용이 외교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하든 SBY 발언 내용이 외교부, 특히 하산 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2월 하산 장관과의 단독 면담 시, SBY께서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희망하였는데, 인도네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하산 장관은 두 가지를 말하였다. 우선,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 심화되고(deepening and widening) 둘째, 양국은 공동의 이해(shared interests)를 가지고 있어야 하다고 하면서 한국과는 첫 번째 조건(협력의 확대, 심화 추세)을 만족시키고 있고,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설립이라는 공동 전

략적 목표를 두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관계 수립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통령에 이어 외교부 장관도 말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담당 국장이 배석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의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한편, 공동위원회(JC)는 4월 반기문 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였을 때 MOU가 체결되었고, 제1차 회의는 양국 외교부 장관의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하산 장관의 서울 방문 계기에 6.9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본부는 당초 인도네시아와 전략적 관계 수립에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 일, 중, 러 우리 주변 4 강대국과의 관계에만 그 용어를 써 왔고 인도네시아 담당과장, 국장은 이러한 전통적인 발상에서 거부감을 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사관 조사에 의하면, 당시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다양한 명칭의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 관계라는 용어가 남발되어 우리 대통령의 방문 때마다 전략적 관계를 수립할 정도였다. 이에 반하여,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외교 전략의 선진국답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자국의 이익에 가장 중요한 나라들에 국한하여 맺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용은 노 대통령의 방문 계기 발표된 공동성명에 구체화되어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 등 분야별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관심사항(SBY 관심사항)은 과학기술 협력, 인력개발(HRD) 협력, 투자 및 방산 기술 협력, 반부패 협력(훈련 지원 등) 등이다. 반면, 한국의 관심 분야는 원자력 협력, 조림사업,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진출(발전소 건설 사업), 방산협력 등이며, 이 분야의 정례적 협의 기구의 설치도 요청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공동성명의 초안은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작성하였다. 그 후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외교부 사이 여러 차례의 윤독회가 있는 후 본부에 보고하여 우리 정부 내 검토를 거쳐서 확정되었다. 나로서는 국방 협력과 방산 협력에 관하여 더

욱 강한 문안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양국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자기 사업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아 조정에 애를 먹기도 하였다.

이 중 경제 관련 협력사업의 상제는 분야별로 후술하겠다. 그러나 한·인 반부패 협력 MOU 체결 과정은 특히 기억에 남아서 아래 소개한다.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SBY는 2004년 대선에서 소수당인 민주당(550석 의원 중 57석 차지)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당시 현직 메가와티 대통령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SBY 성공 비결로서 그의 반부패 캠페인을 들고 있다. 그 당시 이 나라 정치 무대에서는 부패척결 문제를 터부시하였다. 그러나 SBY 후보만은 이를 과감하게 들고 나온 결과, 인도네시아 최초의 국민 직접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실제 SBY는 대통령에 취임하여 반부패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반부패방지위원회(KPK)이다.

내가 인도네시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KPK 요원들이 일요일 최고재판소장(우리의 대법원장 해당) 사무실을 불시 급습하여 최고재판소장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 건을 조사하였다. 다음날 최고재판소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였고, KPK 위원장이 사과함으로써 사건은 일단 무마되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이 나라 법조계의 비리가 가장 심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장애가 되고 있지만 누구도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정부패에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KPK 요원들의 패기가 그 만큼 대단하였다.

2006.4.28. “루키” KPK 위원장이 나를 보자고 하였다. SBY 방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던 초기 단계의 시점이었다. 루키 위원장은 SBY 한국 방문 문제가 협의 중이며, 이 기회에 한국과 부패방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궁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나의 협조를 구하였다.

내가 구체적 희망 사항을 문의하자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양국 대통령의 임석 하에 양국 부패방지 기구 사이 협력 MOU를 체결하자는 제의이다. SBY의 개인적 관심이라고 하면서 부패방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차 밝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내가 한국 정부의 부패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KPK가 아시아의 각국 부패방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홍콩과 한국이 부정부패 척결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답하였다. 홍콩 모델은 인도네시아에 맞지 않고 한국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이 단 시일 내 부정부패를 척결한 성과는 놀랍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부패 척결의 최고모범 사례라는 찬사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은 얼떨떨하였다. 한국의 반부패 수지가 동남아 사람들 눈에는 높게 보일지 몰라도 아직도 국제수준이나,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양국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 추진을 지지하여 본부에 강하게 건의하였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12.4 양국 정상 임석한 가운데 동 MOU는 서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루키” KPK 초대 위원장(사진)과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워졌고 수시로 만나 식사를 하였다.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골프를 친 사람도 “루키” 위원장이었다. 내가 KPK 위원장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묻자, 5년 연임을 제의받았지만 본인이 거부하였다고 한다. 제 명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의 말투에서 KPK가 받는 외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었다. KPK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지지도는 지금도 절대적이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정부, 경찰, 검찰의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나 KPK는 신뢰하며, 정부 관료들이 가장 겁내는 기관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

“루키” 위원장은 KPK 퇴임 후 “크라카타우” 인도네시아 제철소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최근 KPK와 인도네시아 경찰 간 암투로 인하여 KPK 위원장직이 한동안 공백이 생기자 임시 KPK 위원장직을 수임하였으나 지금은 퇴임하였다.



(2) 정상회담 (2006. 12.4. 10:00)

정상회담 진행에 관한 의전절차는 나라마다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의장대 사열이 있는 후 두 부부가 관저 쪽으로 가서 함께 다과를 한다. 그런 다음 두 대통령이 각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확대 정상회담장에 입장하여 정상회담을 개시한다. 정상회담에는 30 여명의 인도네시아 전 각료가 참석하는 점이, 회담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소수 각료(또는 차관)가 참석하는 한국의 의전관례와 다르다.

정상회담에서 상호 의례적인 인사말을 나눈 후 SBY가 주인으로서 먼저 주요 이슈들을 짚어 나간다. 반부패 협력, 국방 협력, 대테러 협력을 가장 먼저 언급한 후 투자,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 인도네시아 노무자 송출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을 주문하였다. 그날 일기에는 SBY가 반부패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는 점, 국방 협력 관련 공동제작 및 기술 훈련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적혀 있다. SBY는 준비된 정상회담 자료를 거의 읽는 수준으로 발언하는 등 실무 형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자료를 거의 보지 않고 발언하였다. 나는 노대통령 취임 초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으로서 노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과 다자 국제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근거리에서 본적이 있었다. 그때는 솔직히 불안하였고, “공부 좀 하고 나오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 준비된 자료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두서가 없고, 특히 비유적인 어법은 상대방이 결코 알아듣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날 노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노대통령은 먼저 한국이 왜 인도네시아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양국은 식민지 경험, 이념대립, 전쟁, 절대 빈곤 속에서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발전을 추진한 결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다.

다시 말하여, 자주국방, 산업화, 정보화, 국가발전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지원국/피 지원국간의 갈등 속에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했으며, 아직 독재 및 부패 구조 해체라는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 양국은 이러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어 SBY가 제기한 의제와 현안들을 메모하여 하나씩 빠짐없이 응대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노 대통령의 발언 중 나의 주목을 끈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계속 성장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정부 차원의 장기적 참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후 경제인 오찬, 동포 간담회 석상에서도 정부 내 인도네시아 전담반(task force)을 만들어 장기적 진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내가 옆자리에 앉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원자력 협력 문제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모를 적어 드렸다. 정 장관이 이를 즉시 통역 자리를 건너가서 대통령에게 전해 주자 대통령이 뒷장에 “전력발전소에 포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만찬 때 언급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는 아직도 이 메모지는 추억으로 보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실제 저녁 만찬 때 언급하였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문제이며 이 문제는 아직 까지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다.

(다음호에 계속)

브렉시트(Brexit), 세계경제를 흔들다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지난 6월 24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 British + Exit)가 현실화된 것이다. EU는 출범 23년만에 처음으로 회원국 이탈을 맞았고, 회원국은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는 과도한 분담금 부과, 회원국으로부터의 역내 이민자 증가, EU의 과도한 규제 및 EU 내 영국의 위상 저하 등에 대한 불만이 커져 온 상황에서 유럽과 분리된 독립적인 국민 성향과 정치 집단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에 브렉시트는 분명 악재로 해석되었으며,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국 주가가 급락했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달러화와 엔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는 일제히 약세로 전환되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24일 중 4.9% 급락한 반면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로 4.7% 상승했다.

원달러환율의 경우 하루동안 29.7원 상승하며, 남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었던 2011년 9월 이후 가장 큰 일일상승폭을 기록했다. 통화별 달러대비 일일 절하 폭은 파운드(8.2%) > 유로, 원화(2.5%) > 말레이시아 링깃(2.4%) > 호주 달러(2.1%) > 싱가포르 달러(1.5%) > 인도네시아 루피아(1.1%) > 중국 위안화(역외, 0.8%) > 필리핀 페소(0.9%) > 태국 바트(0.6%) 순이었다.

브렉시트는 미국 연준의 향후 금리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직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제조업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도 한 몫 하고 있



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앞서 열린 연준 의장은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금융시장의 충격과는 달리, 브렉시트가 실물경제, 특히 아시아 신흥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리서치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브렉시트에 따른 아시아국가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최대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최근 예상했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우 GDP에서 영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 국가 중 영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홍콩(GDP 대비 0.26%)을 제외시 대부분 국가들의 영국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0.0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0.0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 서브프라임, 아시아 외환위기 등 그 동안 위기로 지칭되어 온 많은 경제적 사건들과 달리, 브렉시트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경제 이슈가 인위적으로 생성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향후 상당기간 유럽 경제의 침체 및 유럽지역과 연계된 글로벌 교역의 위축이 예상되고, 브렉시트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기폭제가 되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2016 코참 정기총회

2016년 6월 17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 (회장: 송창근)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자카르타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 조태영 대사와 양영연 한인회장, 코참의 부회장단 등의 코참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연임하는 송창근 4대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본 행사에 앞서 오랜기간 코참의 자문으로 활약하신 고 김재유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창근 코참 4대회장은 취임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후진국이 아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온 만큼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현지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자세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한인기업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코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코참의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해준 대사관과 한인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태영 대사는 축사를 통해 4대회장의 재추대를 축하했고 많은 한인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봉사와 청년 실업문제에 앞장서서 한국청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큰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격려와 감사를 표했으며 “송창근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코참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 고 했다. 그리고 양영연 한인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업활동에 코참이 현지 당국과 한인기업들의 입장 차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에 응원을 보낸다. 더욱 화합하고 상생하는 코참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승은호 코린도 명예회장은 특강에서 인도네시아 생존전략은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현지인과 함께 어울려 그 습관을 잘 이해하면서 점진적인 의식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회사를 성장시키는 바탕이 된다면서 본인의 지난 40여년의 경험을 풀어놓았다.

한편 대사관 김용운 노무관의 민관 합동 해외취업지원 협의회 소개가 있었으며 청년 해외취업 지원 배경과 방향을 소개했다. 해외 연수취업과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K-Move 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를 위한 GYBM 1기 연수생의 체험 발표가 있었다.

코참은 1991년 한인회 산하 상공분과 위원회로 출발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기업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우리기업을 대표해 대사관, 코트라 및 각 업종별 협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신규법률과 경제동향분석을 통해 한인기업의 애로사항 전달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해 정부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단체인 코참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GO GLOBAL KOCHAM TOGETHER!

인도네시아 이민청 체류 증명서 단속

KITAS(원본) 와 동시에 여권소지 해야 안심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 목적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169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그에 따른 인도네시아 이민청 합동 단속반의 기준이 모호한 집행에 최근 들어 동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17일, 체류증명서 단속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이민당국에 체류증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22일).

이날 회의에는 이명호 총영사와 대사관, 한인회, 동포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민당국에 KITAS와 함께 여권 원본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KITAS 수속을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 등 모든 신분증명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확인증’ 발부 등을 요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명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며 “모든 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규는 거의 같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지 미기재 시 연행을 당하는 일이 있으므로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과 체류허가증 원본을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이민 관련 법령 제71조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행증명서(여권)와 체류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16조에 의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관할 이민국이나 합동조사반 별로 다른 잣대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들이 혼신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법규정에는 KITAS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KITAS 원본만 지참하면 되지만, KITAS에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KITAS 원본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한정체류증명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TM(Surat Tanda Melapor)을 함께 소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인 동포들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관련법령>

제 71 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 a.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 b. 공무원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 시 여행증서 또는 체류허가증 제시 및 제출

(Article 71) Every Foreigner who is present in the Indonesian Territory shall be obliged to:

- a. Provides all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personal identity and/or his/her families identity and report every change of civil status, citizenship, occupation, Guarantor, or change of address to local office of Immigration; or
- b. Show and submit any Travel Document of Stay Permit owned when requir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on duty in the interest of Immigration control.

ZEN 한국 수출전용공장 SAINT JAMES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김성수 회장

친환경녹색경영으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한인뉴스 취재팀은 2016년 6월 10일 땅그랑 소재 ZEN한국 수출전용공장인
PT.한국세라믹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1. 회사소개

PT.한국세라믹인도네시아는 ZEN한국의 수출전용공장이며, 인도네시아 내수 브랜드명은 Saint James 세인트제임스입니다.

1991.08 수출전용공장 PT.한국세라믹인도네시아 설립

1996.06 (주)ZEN한국 설립

2001.09 ZEN한국 공식 쇼핑몰 오픈
www.zenhankook.com

2007.06 굿디자인 도자기 부문 단독 선정

2007.09 도자기 밀폐용기 출시 (ZEN&LOCK)

2008.06 인도네시아 해외 수출 전용공장
본차이나 제3공장 설립

2014.12 한-인니 CSR 우수기업선정

2015.11 국가 품질대상 명품창출부문 대통령상
수상

2016.06 대한민국 혁신대상 7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표준협회)

2. 생산케파 및 매출규모

생산량 22,000,000PCS /년, 약 5,000만불 규모

3. 한국인 직원 및 현지인 종업원 수

인도네시아 - 한국관리직 직원 약 15명,
인도네시아 현지인 직원 약 1,600여명
ZEN한국 직원(한국 직원) - 약 140 명

4. 인니 직영점수 및 지역 분포

총 인도네시아 매장은 8곳입니다.

직영점 4곳 - Kemang Mall, Pondok indah Mall, St Moritz Mall, Lotte Avenue Shopping
매장 4곳(Agent 운영) - Kelapa Gading Mall, Taman Anggrek Mall, Summarecon Mall, Ruko visi Bali

5. 경영방침

최고급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의 품질경영, 고객 만족을 위한 고객 중심 경영, 친환경 녹색경영, 법과 상식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경영입니다.

6. 회장님의 경영 철학

ZEN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철학은 바로 친환경 경영입니다. 이는 ZEN한국이 설립될 당시부터의 경영방침으로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공정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적인 경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ZEN한국 사내에서는 3R (Reduce, Reuse, Recycle) 운동을 시행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ZEN 한국의 전 제품은 100% 무연 유약의 납 성분이 없으며, 영국, 독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의 세계최고 상급의 정제된 친환경 천연원료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7. ZEN한국이 타사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경쟁력은?

2009년 ZEN한국은 일본 최고 명품 도자기인 노리타케를 제치고 아랍에미리트 재외공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60여 개 국가에 설치된 UAE 모든 공관에 ZEN한국 제품이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스웨덴 왕실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빅토리아 공주의 결혼식용 식기, 노벨상 시상식 행사만 찬장 공식 식기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도 시즌마다 새로운 트렌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에 빠르게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약15%를 연구 개발에 필요한 설비기기를 점검하고, 확충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R&D센터 전문인력을 150명으로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D센터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인해 기능성 제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8. 제품의 특징이나 개발현황

타사에 비해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성 제품은 ZEN&LOCK(젠앤락)과 ZENCOOK(젠쿡)입니다. 젠앤락은 플라스틱 커버와 도자기 몸체를 결합하여 만든 밀폐용기입니다. 이전에 플라스틱과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로 형성되어 있던 밀폐 용기 시장에 저희가 개발을 성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리, 플라스틱 등은 프레스에서 찍어내는 생산 방식인 반면에 도자기는 약 1,300℃ 고온의 가마에서 3번 구어야 제품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이 처음 가공하였을 때보다 약 15%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도자기가 이런 소성 시의 수축 과정에 제품이 변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수한 고온 개발과 정밀한 온도제어를 통해 제품의 변형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하였고 작은 사이즈부터 대용량 사이즈의 다양한 밀폐용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자기 업체에서도 저희 제품을 모방하고자 시도를 하였지만 작은 원형 정도는 모방하여도 직사각이나 대용량 제품은 감히 흉내조차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콕은 한국의 전통 뚝배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내열자기입니다. 기존의 내열자기 일명 뚝배기는 기공이 많아 설거지할 때 세제를 흡수하고 이렇게 흡수된 세제가 요리 시 다시 분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젠콕은 내열성은 기존 제품들보다 개선하면서 세제 흡수율을 없애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직 화뿐만 아니라 인덕션 렌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내열자기도 개발하여 다양한 조리 기구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9. CSR이나 후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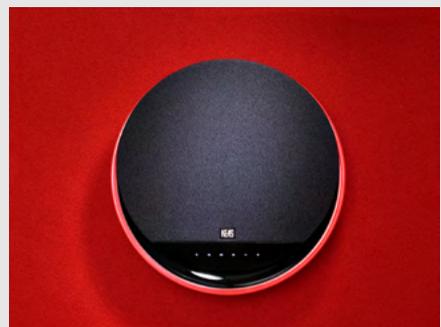
기업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신



공정과정을 설명하는 윤조현사장

념으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광화원 지원, 충청북도 모범경찰 가족 후원 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 인도네시아 공장이 위치한 땅그랑 시에 ‘꿈나무’ 학교를 설립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학생들이 맘껏 뛰어 놀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최고의 국립대학교인 UI(University of Indonesia)에 한국 문화코너 설립 등 국내외를 망라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내 적십자의 표창장 수여,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블루투스도자기스피커



(UI)에서 감사패 수여 및 인도네시아 CSR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사가 ‘인도네시아 요업 현황 및 우리기업 진출사례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에 선정되어 여러 기업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10. 회사의 장점이나 특별한 사항

고객은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ZEN한국은 120여명의 R&D센터의 전문 연구인력을 통해 이 부분에 어느 기업보다도 민첩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여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대용량 도자기밀폐용기나 기존 뚜껑배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에 성공한 내열 도자기냄비, 스크류 타입의 밀폐용기 등 단순한 테이블웨어가 아닌 기능을 지닌 도자기 제품을 선보이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ZEN한국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능성 도자기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며, 2015년 스피커 제조업체 키아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시킨 블루투스 도자기 스피커와 같은 타 업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상품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물소들의 일상

촬영장소 : 칼리만탄 남부 홀루 송아이

작품사이즈: 90m X 120



칼리만탄(Kalimantan)섬 남부지역에는 홀루 송아이(hulu sungai)가 있다.
 강이 너무 넓어 바다 같은 강, 수 만 마리의 물소 떼들이 그 강에서 살고 있다.
 강 중간, 중간에는 작은 외양간들이 있다.
 물소들은 외양간에서 잠자고 새벽이면 강물로 뛰어 들어 하루 종일 물풀을 뜯어먹고 오후에 퇴근하듯이 외양간으로 돌아온다.
 그곳 강물은 이상(?)하게 흑갈색의 투명한 빛깔이다. 소들이 많고 물가의 풀들도 많아 모기들도 많다.
 조금만 움직여도 뒤집어 질 것 같은 목선을 타고 며칠 동안 물소 떼를 따라 다니다가 모기에 물려서 내 다리가 통통 부어 보건소에서 주사 맞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그곳의 풍경은 한마디로 멋지다. 초록빛 풀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물소 떼들이 풀 속으로 이동하면 목선을 타고 소치는 사람도 소 떼를 따라 간다.
 물소 떼 위로 하얀 새들이 날아다니고 파란 하늘의 하얀 구름들.
 물소 떼들 촬영하러 갔을 때 일이다.
 강물 위로 머리만 내밀고 유유히 다니는 물소들이 얼마나 빠르지 알고 싶었다.
 동행한 사람 중, 한국에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가진 인명구조사가 있었다.
 우리는 물소와 안전요원 중 누구의 수영실력이 더 빠르지 내기를 한적 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김성원/ 수필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6.25 전쟁 66주년 기념식 및 경연대회 시상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이하 자총련, 회장 현상범)은 25일 오전 10시 한국문화원에서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6.25 전쟁 당시의 사진들을 전시해 전쟁의 참혹함을 알렸다. 한인회가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개식선언, 글짓기 발표, 웅변발표, UCC 상영후 학생대표 김평강 군의 “여러분의 값진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부르며 식은 마무리 되었다.

자총련은 지난 2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6.25전쟁, 북한인권, 통일, 독도, 대한 민국 5가지의 주제로 글짓기, 웅변, UCC 3부분으로 총 111편의 작품을 접수받아 노력상,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역사의식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나라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았다.

최우수상에는 김평강, 강동현, 윤동욱군 (UCC 고등부, 직스 11학년)이 1,000만 루피의 상금과 상장을 수상했다.

현상범 회장은 “전쟁은 끝난것이 아닌 휴전상태이다. 우리가 북한 식당 출입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 만드는 것을 돕는 것” 이라고 말하

며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유를 수호하는 애국단체’로서 모든 교민이 자유와 국가를 위해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게 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에게는 당시의 기억을 되새겨 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는 당시의 빈곤했던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오늘의 행사가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남북이 분단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집중! 이 사람

한인뉴스 창간20주년 특집 인터뷰 조규철 한인회 고문



그동안 한 호의 결호도 없이
사명을 다해 온 한인뉴스가
20 주년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인뉴스 편집팀은 6월22일, PT. DONG JUNG 사무실(Jl. Patrajasa)로 14년동안 한인뉴스 편집인으로 봉직하신 조규철 고문을 방문했다.

Q. 고문님 인도네시아 정착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개인/회사)

1987년 5월 당시 효성물산(종합상사) 자카르타 주재원으로 발령 받아 이곳에 부임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통상 5년 정도 임기이나, 1990년 8월 사표 제출을 하고, 1990년 말 BKPM으로부터 PMA(외국인 투자법인)승인을 받고, 1991년 1월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26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한인뉴스와의 인연 그리고 편집인으로서의 활동 내용

90년대 KOGA(봉제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당시 승은호 한인회장님으로부터 한인회 부회장으로 봉사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수

락하게 됐습니다. 2001년 초, 승회장님께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등의 교민지를 건네시면서, 우리 한인뉴스도 외관, 내용이 이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우리 위상에 맞다는 특별한 지시를 받고, 흑백사진에 신문용지 수준의 내용도 보잘 것 없었던 한인뉴스를, 당시 한인회 사무국장이었던 김재민씨를 비롯해 편집위원들 및 여러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되어 컬러사진에 내용도 알찬 오늘의 한인뉴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후, 한인뉴스 후원회(회장 조운행), 미국 LA 정진철 회장님, 배상경 회장님, 석웅치 회장님, 박재한 현 한인회 수석 부회장님 등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마침내 2012년에 동포재단에서 주관한 세계 교민잡지 콘테스트에서 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한 점은 14년간 편집인으로 봉직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Q. 한인뉴스에게 하고 싶은 말

20년 훌륭한 전통의 한인뉴스가 앞으로도 ‘한인뉴스’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한국인, 인니인들에게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취재하여 교민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나아가길 바라며, 계속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Q. PT. DONG JUNG INDONESIA 의 생산품 소개 및 매출규모, 회사경영 노하우 등

당사는 1991년도 Curug (Tangerang)에 1공장을 시작으로 1995년도에 KBN(Cakung)에 2공장 신설, 지금까지 26년째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1공장은 비봉제부분 및 strapping band, 타이어용 P.E. sheet 등을 생산하고 있고, 2공장은 주로 봉제, 가방 등 EPTE지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원하는 제품을 제때에 납품하는 것이 당사가 지향하는 목표이고 원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Q. 생활이나, 경영에 철학이 있다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이곳에 남아야 했다는 게 불효로 느껴져 마음 고생이 많았으나, 세월이 지나 사업도 나름 번창하였고 그로 인해 한구석에 자리잡았던 마음의 빔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20여년 함께한 직원들과 앞으로도 10년 20년 꾸준히 성장하는 작아도 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Q.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

‘여수가서 돈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이제는 ‘자카르타가서 돈자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전세계로 진출한 한국인들 중 이곳처럼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넘치는 것도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한인회나 상공회의소 등 별 잡음없이 잘 유지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인사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또 보듬어 주는 따뜻한 한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국기업, 철도공단이 참여하는, 자카르타 LRT 1호선 사업 착공식 개최

바수끼 주지사, 한국이 참여하는 LRT 1호선 착공 공식 선포

한국기업과 철도시설 공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카르타 경전철(LRT, Light Rapid Transit) 1호선 사업(약 5.8km)의 착공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이클(Velodrome) 경기장 예정지에서 개최되었다.



착공식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후) 주지사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JAKPRO (PT Jakarta Propertindo) 사띠야 사장, 조태영 주인니 한국대사, 모하잠 말릭 주인니 영국대사 등이 참여하였다.

행사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조태영 주인니 한국대사는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을 3시간 내 생활권으로 만든 우수한 철도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국제 스포츠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며 특히 평시보다 3.5배 이상 많은 교통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2018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경전철 사업의 착수는 큰 의미가 있으며,

고속철도, 간선철도, 경전철 등 최고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 기업이 LRT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자카르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함께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협력관계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모하잠 말릭 영국대사도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 귀빈으로는 상기 사업의 협력력이 예상되는 국가인 한국 및 영국 대사만이 초청되었으며, 바수끼 주지사와 사띠야 사장도 상기 내용에 감사로 화답했다.

축박한 공기일정을 준수가능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JAKPRO의 Satya 사장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경험이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및 영국업체와 협력하기 때문에 공기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조태영 주인니 한국대사는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JAKPRO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주정부 및 JAKPRO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최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착공식을 가진 자카르타 경전철(LRT) 1호선 사업은 2018년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기업은 총 4조 5천억루피아가 투입되는 1단계사업으로 총 5.8km로 라와망운 벨로드롬 역부터 승마장 역,벨로마스 역, 끌라빠가딩 역, 끌라빠가딩몰 역까지 5개역을 잇는 구간을 맡는다.

메리츠코린도보험 ‘베스트 제너럴 인슈어런스’



메리츠코린도보험이 지난 2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미디어 아수란시(MEDIA ASURANSI)에서 주관하는 ‘2016 베스트 제너럴 인슈어런스(Best General Insurance 2016)’ 상을 수상했다.

메리츠코린도보험은 메리츠화재가 코린도그룹과 합작해 만든 회사다. 사측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6,000만 루피아였던 포괄이익은, 1년 새 307% 상승한 128억 4,000만 루피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여러 기업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나, 메리츠코린도보험은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 성과도 얻었다. 지난해 사측의 투자 수익은 2014년보다(28억 루피아) 188% 증가한 80억 6,000만 루피아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해 메리츠 코린도 측 자산도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5% 증가해 1,893억 1,000만 루피아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메리츠코린도 보험 강형구 법인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강하고 좋은 손해보험회사로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교민들을 위한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름다운 나눔



지난 5월21일 문.예총 종합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6월6일 한국국제학교에서 초등, 중등, 고등 학부모 대표들과 아름다운 나눔(대표: 강희중)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여, 6월13일 루마인다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수익금 1천2백만 루피아를 후원하였다.

강희중대표는 “자선바자회를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 주신 업체와 함께 수고해 주신 학부모 대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아름다운 나눔은 2010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즐겁고 행복한 나눔을 펼치고 있다.

<물품후원자>

완구: 이중현사장, 운동화: 심현보사장, 가방: 족자 조현보사장, 의류: 손순락사장, 한기환사장, 배희윤사장, 노영철사장, 샌달: 송재구사장

해양경찰 경비함정 3009함 자카르타 방문

해양경찰 경비함정 3009함이 6.16(목)~6.18(토) 기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3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해양경찰의 해적대응 및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 해상치안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위한 것이다. 훈련단은 방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방문 및 협력체계 구축, 동포 초청 함정공개 및 함상만찬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16(목) 10시, 자카르타 컨테이너항 2번 부두에서 진행된 입항 환영식에는 조태영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동포사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학생,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경찰 3009함의 입항을 환영하

였다. 조태영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동포사회를 대표하여 해양경찰 3009함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은 동포사회에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이라며 훈련단을 환영했다.

6.17(금)에 진행된 동포초청 함정공개 및 함상만찬 행사에는 동포 1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경찰 3009함을 둘러보고 해양경찰이 준비한 만찬을 즐겼다. 함상만찬 행사 때는 태권도 시범단 공연, 마술공연, 인도네시아 전통춤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경찰 3009함은 3천 톤급 경비함정으로 지난 5.24(화) 한국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인도 첸나이를 거쳐 자카르타를 방문하였으며, 6.18(토)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돌아갔다.



동포 신변안전 유의



28일, 제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대사 조태영)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테러 위협이 빈번해짐에 따라 교민들의 신변안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신변안전 유의안내

최근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식당 여종업들의 집단탈북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테러를 지시하였으며, 북한이 테러 공작조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파견하고 해외 폭력 조직과 연계한 테러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북한식당에서 한인회 인사나 대북 무역업자 등 북한과 접촉이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여 마취 기절시킨 후 북한으로 납치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평소보다 더 한층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주변의 친지, 지인은 물론 방문객에 대해서도 이를 주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위협 관련 신변 안전 유의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국내 소재 미 공군 시설 및 우리국민을 지목하고 테러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나라 및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파라테러 이후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상기 위협이 제기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해외 방문, 체류시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현황 및 안전정보를 참고하여 테러 정세 및 치안이 불안한 위험 국가 지역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해외를 방문,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변안전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당직전화 : 0811-852-446

대사관 대표 이메일: koremb_in@mofa.go.kr
해외 방문, 체류 중 신변안전 관련 위협 및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체류국가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나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가?



[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Perkumpulan)과 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Yayasan)]

Q1. 저희 지역 향우회가 출범한지 이제 5년을 넘겼으며 전체 회원수로는 벌써 2000명 이상의 향우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향우회관 및 한글학교를 설립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활동하려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 한국의 민법을 기준으로 하면 향우회는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Perkumpulan)으로 설립을 하여야 하나 인도네시아 현행법상 사단법인은 오직 인도네시아인만이 구성원 자격이 됨으로 외국인으로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현행법상으로 재단법인밖에 없다.

재단법인(Ormas Berbadan Hukum Yayasan)에 관하여는 하기 Tips 1과 2에서 자세하게 비교 설명하니 참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향우회관은 재단법인법(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에 근거하여 향후 설립될 Yayasan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및 건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 7조 1항에 의하여 Yayasan산하에 학교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향우회관내에 한글학교를 개교 하면 됩니다.

Q2. 저희는 이미 Cikarang 지역에 Yayasan을 설립하여 친목단체를 운영 중인데 단체의 지속적인 유지,운영을 위하여 양계장을 설립하여 닭 및 계란을 판매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재단법인(Yayasan)은 비영리 법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양계장을 설립 운영할 수 있나요?

A :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Yayasan)은 비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이름으로 직접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지만, 재단법정도 이익이 없이 출연 재산을 지속적으로 사용만 한다면 언젠

가는 재원이 고갈되어 재단법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01년도 재단법인법(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제 7조 2항에는 재단법인도 출연재산의 25%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00% 수익금을 재단법인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양계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아니면 타 양계회사에 Yayasan 명의로 투자하여 그 회사에서 배당된 이익을 Yayasan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Tips 1 : 사회 단체법 (UU No.17 Tahun 2013 Tentang Organisasi Kemasyarakatan – UU Ormas)

원래는 1985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폐기하고 2013년에 새로 제정한 법률.

UU Ormas(사회단체법) 제 9조에 “비법인 사회단체는 3인 또는 그 이상의 인도네시아인만이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 예외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 10조에 의하면 “사회단체는 형태를 법인 또는 비법인 형태로 조직할 수 있으며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UU Ormas 제 11조에는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조직 시 그 형태는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 (Perkumpulan, 협회)과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재단법인(Yayasan) 형태로만 조직할 수 있다.

UU Ormas 제 43조에는 비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그리고 외국법인으로서 설립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형태는 재단법인(Yayasa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 제 47조 제 2항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설립하는 Yayasan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설립자 경우 5년간 인도네시아 내에서 계속 거주자
- KITAP(ITAP) 소지자
- 최소 출연 재산은 Rp1,000,000,000.- (Satu Miliar Rupiah)

- 운영위원 중 한 명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인이어야 한다.

- “재단법인의 설립취지가 국가 외 민족 그리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는 설립자의 각서

Tips 2 : 재단법인법 (UU No.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일부변경 UU No.28 Tahun 2004)

상기에서 언급한 사회 단체법이 2013년 7월 22일에 제정 발효되어서 2001년 재단법인법(UU Yayasan)에 기 규정된 법률이 2013년 사회단체법(UU Ormas)에서 재단법인에 관하여 새롭게 규정하거나 상충된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단체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만약 사회단체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단법인 관련사항은 2001년에 발효되고 2004년에 일부 개정된 재단법인법에 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최소 출연 재산을 2001년 재단법인법에 근거한 2014년도 정부령(PP No.63/2004)에는 Rp100,000,000.- (Seratus Juta Rupiah)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도 사회단체법에는 Rp1,000,000,000.- (Satu Miliar Rupiah)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최소 출연 재산은 Rp1,000,000,000.- (Satu Miliar Rupiah) 이어야 한다.

현재 사회단체법 관련하여 많은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있는 중입니다.

제 의견으로도 이미 재단법인법(UU Yayasan)은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사회단체법(UU Ormas)에서 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다루어서 혼란과 상충을 야기하기 보다는 재단법인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성 : 김 중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인도네시아 생활 필수 APP 추천 2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금식기간이 시작된 이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은 심한 교통정체로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달에 소개해 드린 구글맵, Waze 등을 사용해 보셨나요?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교통정체 상황에서 위 서비스의 위력을 느껴 보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통 앱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양한 인도네시아 생활 중에 도움이 될만한 앱들을 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상세한 설명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고 간단히 각각 서비스의 특징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아래에 나오는 서비스들을 직접 설치해 가면 이 칼럼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맛집도 앱으로 찾는 시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맛집입니다.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맛집 정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Zomato

와 Qraved 두 가지 앱만 핸드폰에 깔아두시면 맛집 걱정은 잊으셔도 됩니다. Zomato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당 관련 앱중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에디터가 직접 방문해서 식당의 메뉴를 찍어 올려주고, 식당 평점과 평판을 확인하기에 좋은 서비스입니다. Qraved의 경우 다양한 분류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식당을 추천해 주는 기능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뜨는 서비스인 Sindhen은 식당 소개가 아닌 식당이나 Bar의 이벤트나 공연소식을 낱짜 별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엔터테인먼트성향이 강해서 즐거운 Nightlife를 원하시는 날에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스마트폰의 필수 항목 Cloud

원거리 작업의 핵심은 Cloud(이하 클라우드) Service에 있습니다. 클라우드란 자신의 컴퓨터나 핸드폰에 문서나 미디어 파일 등을 직접 저장



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인터넷 접속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해당 파일을 열어보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파일의 백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서작업을 클라우드 상에서 진행하고, 클라우드의 접속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라 판단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파일이나 가족사진 등을 보관하는 기능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Google Drive와 Dropbox, Onedrive, Naver Drive, iCloud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Google Drive와 Dropbox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사진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꼭 권해 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Google Photo입니다. 구글 포토가 제공하는 기능 중 가장 위력적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구글은 1600만화소 이하의 사진, 풀 HD 이하의 영상에 대해서는 백업용량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DSLR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무한으로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글 포토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업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막무가내로 쌓이기만 했던 사진이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업무용 프로그램 Polaris Office

업무용 프로그램은 워낙 다양하고 많은 쓰이는 부분이라 중요한 앱들의 이름만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이라 오히려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용해 보면 PC와 연결해서 사용 가능한 도움이 되는 앱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Polaris Office(문서작성용 Office 프로그램), Send Anywhere(파일 전송 프로그램), Evernote(메모 및 스크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vernote의 경우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활용방법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

폰에서 연동되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4. 다양한 한인뉴스와 커뮤니티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뉴스와 한인 사회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소개해주는 한인 대상 뉴스 사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고 계시는 한인뉴스의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PDF로 매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의 PDF판은 인도웹(www.indoweb.org)에서 한인미디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한인 뉴스는 데일리 인도네시아(www.dailyindonesia.co.kr)와 자카르타 경제신문(www.pagi.co.id / Pagi APP 지원), 한인포스트(한인포스트 밴드)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인도웹(인도웹 APP 지원)이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출퇴근 시에 위의 서비스들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한인관련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인도네시아 출장이나 여행 중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는 것으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위 앱들을 활용해서 더 스마트한 해외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 세계대회

◆ <전국노래자랑>은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 1TV를 통해 35년째 변함없이 방송된 KBS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의 2016년 초대형 프로젝트!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는 세계 한인의 날 10주년을 기념하여 내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이 직접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예심을 진행하고, 수상자는 한국으로 초청하여 본선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의 삶의 애환과 사연을 통하여 감동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따뜻하고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1. 예심 접수 방법 및 일정

◆ 자격 요건 : 해당 예심 국가 거주 재외동포 누구나 (나이, 성별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 2016년 5월~ (참가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 이메일 지원

KBS 전국노래자랑 홈페이지 [<http://www.kbs.co.kr/1tv/enter/jarang>] → 양식 다운로드 → 메일로 지원서 보내기 → 지원 완료!

◆ 사전에 이메일 지원을 하신 분들만 해외 현장 예심에 참가 가능합니다!

** 확정 국가별(10여개 국)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2. 본선 녹화 및 방송 일시

◆ 본선 일시: 2016년 9월 초순, 여의도 KBS홀, 19시 (예정)

◆ 방송 일시: 2016년 9월 18일(일), 12시 10분 ~ (90분간 예정)

3. 예심 참가 기준 및 시상 내역

◆ 예심 참가 기준: 재외동포 누구나 현지 예심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체 팀은 최대 2명까지만 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로만 구성해야 함)

◆ 시상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팀은 한국 본선 참가 기회 및 항공료, 숙박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가 인원내 따라 국가별 수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예심 안내>

- 예심일: 2016년 8월 13일(토)

- 장소: 롯데에비뉴 아이스 플레이스 홀 (<http://www.lotteshoppingavenue.co.id/facilities/5/the-ice-palace-concert-hall>)

- 시간: 미정 (추후 공지 예정)



2016년 6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차를 한대 더 사던지...홀짝제에 대한 현지인들 반응은?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차량 홀짝제로 인해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7월 20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약 한달간 시범 운영된다.

이번 정책발표로 인해 외국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자카르타에서 은행원으로 근무 중인 27세 현지인은 “이번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다.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 방안이 우선이다. 막히는 시간에 주요도로를 우회하라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그는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야 한다. 인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찌라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홀짝제 시행 도로를 피하기 위한 출퇴근객들이 다른 도로로 몰려 교통체증이 더욱 심

해질 것이라며 앞서 시행되었던 쓰리인원 제도처럼 효과 없이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편에서는 찬성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카르타 교통체증이 워낙 심각해 여러가지 제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격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번의 시도를 통해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홀짝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규정은 홀수날에는 홀수 번호판 차량이,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판 차량만 해당 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홀짝제 시행 도로는 종전 쓰리인원 적용 도로였던 탐린, 수디르만, 가뭇 수브로또를 비롯해 도로요금자동징수시스템(ERP) 대상 도로인 라수나 사이드까지 포함됐다. 홀짝제 시행 시간은 오전 7시~10시와 오후 4시~8시 출퇴근 시간이다. 차량 홀짝제는 택시, 앰블런스, 소방차, VVIP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

외국인 관광객 비자면제 혜택...불법행위 증가 '부메랑' 우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비자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취업 비자 없이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인권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10만 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객 비자 면제 확대 조치 정책을 펼쳐왔으며, 총 169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광객 무비자 허용 국가로 규정한 국가 출신 국적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방문해 30일 이하로 머무를 수 있으며 입국허가 사증(비자)을 받지 않아도 된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비자 면제 정책이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빠자자란 대학의 마케팅 관광학부 루화이다 교수는 “비자 면제는 신원확인이 불확실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의 관광학부 구나위자야 교수는 “비자 면제를 악용해 불법 취업 및 불법 마약 거래 등이 남용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정부차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 속에 인도네시아 관광부는 외국인 입국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국영 통신 텔레코뮤니카시 인도네시아(텔콤)와 제휴했다. 텔콤이 외국인 입국 시 휴대 단말기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무인권부는 지난달 남부자카르타 이민국의 관할 지역인 깔리바따에 외국인감시팀(TIMPORA) 사무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라마단 기간 자카르타주 오락시설 제한적 영업 가능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는 3일 “주지사령에 따라 라마단 금식월에 노래방 등 일부 오락시설에 대해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특별주 관광청 짜뚜르 라스완또 국장은 “호텔 내부에 위치한 오락시설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외 오락 시설의 경우 영업 시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노래방이나 연주설비를 갖춘 오락 시설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반까지, 당구점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한편, 마사지 업소 및 나이트 클럽은 라마단 시작 전일(6월 5일)부터 르바란(이둘피트리)이 끝날 때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자카르타 경찰에 따르면, 라마단 기간 동안 영업 허가를 받은 오락 시설에는 녹색 스티커를 부착하고, 영업이 금지된 업소에는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된다. 경찰은 “만약 빨간 스티커를 붙인 업소가 라마단 기간 동안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해 달라”고 공고했다.

한편 이슬람 단체나 과격단체에 대해서는 업소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력을 이용해 오락 시설을 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직도 '처녀성 검사' 받는 인도네시아 여군경

국제인권단체 “국가안보와 무관한 폭력” …여성 가운데 경찰에 투신하는 이 극소수
홀륭한 군인이 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
용감함? 충성심? 인도네시아 여군의 경우 여기에 처녀성까지 간직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인도네시아의 여군 입대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HRW는 처녀성 검사란 성차별에서 비롯된 폭력이라며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인 처녀성 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HRW는 자카르타 군병원에서 복무 중인 한 전문의를 인용해 처녀성 검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검사는 대개 여의사가 맡지만 남의사에게 검사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폭로했다. HRW의 니샤 베리아 여성인권 국장은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인 처녀성 검사가 국가안보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도네시아군은 깨달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HRW는 2014년 11월 현지 경찰이 여경 채용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처녀성 검사에 따른 수치심, 고통,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HRW의 비난 이후 인도네시아 경찰은 처녀성 검사를 공식 종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처럼 방대한 열도로 이뤄진 나라에서 처녀성 검사 폐지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란 어렵다고 최근 지적했다.

바드로딘 하이티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여경 채용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가 폐지됐다”면서도 “다만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생식건강’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웹사이트에서 여경 채용 과정에 ‘임신 테스트’가 포함돼 있음을 고지했다.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의 무시야파크 수석 의료관은 “새 검사법에 처녀성이 온전한지 테스트하는 과정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여의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여의사가 드문 지방에서는 남의사가 검사하기도 한다.

무시야파크 박사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여경 채용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군은 여전히 처녀성을 검사한다. 인도네시아군 당국은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며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수호 임무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남자 군인이 여군과 결혼하고 싶어할지 모르니 여군은 순수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도 펼치고 있다.

이에 군 입대 희망 여성들에게 처녀성 검사가 여성의 존엄과 국가의 영예를 드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인도네시아 여성 가운데 경찰에 투신하는 이가 극소수인 것은 처녀성 검사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찰 병력 중 여성의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성을 보호하는 경찰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지의 많은 여성이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을 당해도 남성 일색인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기피하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여성폭력근절위원회의 인드리야티 수파르노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경우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별로 없다”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가정폭력 문제를 털어놓지 않는데 어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되레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철창 안에서 지내야 했다.





꽃의 화가, 호리 후미코 (堀文子)



(1952년, 고원)

스승을 두지 않고 자유로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그려나간 호리 후미코 화백은 풍경과 꽃 등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과 화조를 모티브로 작품을 하는 일본화가입니다.

그녀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화방에 진열해놓은 고운 동양화 물감을 그대로 마주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곱고 또 눈부시게 화사합니다.

1918년 7월 2일 도쿄(東京都)에서 태어난 호리 후미코 화백은, 여성도 자립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36년 ‘여자 미술 전문학교(女子美術大學)’ 일본화(日本畫)부에 입학합니다. 재학 중 ‘새 미술인 협회 전’에 첫 입선을 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그 후에는 새로운 일본화의 길을 찾아가며 수상을 거듭했지만, 그녀는 자유로움을 위해 일본의 권위 있는 관전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29세에 외교관과 결혼하였지만 43세가 되던 해 남편과 사별한 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당찬 인생을 살아 온 화가입니다. 스스로 고독의 길을 선택하여 한곳에 머무는 삶을 살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신선한 감동과 경이를 느끼고 각 나라에서 보고 느낀 감상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지내는 나라가 바뀔 때 마다 화풍도 바뀌는 듯, 그녀의 그림은 일본화에는 없는 독자적인 표현 방법으로 자연에 대한 경외, 생명의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세계 방랑 여행을 하던 시기에 미국, 이집트, 유럽과 멕시코에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다시 일본화의 색채 및 안료의 아름다움에 회귀하여, 1967년에 일본 ‘가나가와 현 오이소’ 로 이주하게 됩니다. 1981년에는 ‘가루이자와’ 에, 1987년에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에 작업실을 두며 세상과의 새로운 만남을 이어갔고,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화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년이 된 후에도 미지의 세계를 갈구하던 그녀는 72세의 나이에 돌고 돌아 아마존 강과 마야 유적, 그리고 잉카유적지로 스케치 여행을 떠났고, 그녀의 나이 82세에는 히말라야 산맥 고지를 여행하며 그녀의 대표작인 ‘환상의 고산식물 블루 포피’ 를 완성합니다.

2001년, 고령의 나이 탓에 증병으로 쓰러지게 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한 그녀는 작품 활동에 있어 또 다른 경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친밀한 곤충과 같은 새로운 화제, 절리회나 붙인 그림 등 미지의 감동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동 원화와 삽화, 스케치 등 다양한 작품 속에서 맑고 깔끔한 표현을 통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작품에 대한 태도와 세계관을 느낄 수 있으며 추상화된 나뭇가지에 흰 선으로 연결된 다채로운 색깔의 새들이 있는 작품은 마치 서로에게 깨끗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항상 자기와 결투하는 듯 하다는 그녀는 ‘회춘인생, 90세부터가 재미있어’ 라는 그녀의 저서 제목처럼, 98세인 현역 화백의 여정이 세상에 감명을 줍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높은 곳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화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존경스럽습니다.

글: 김현경 (한인미협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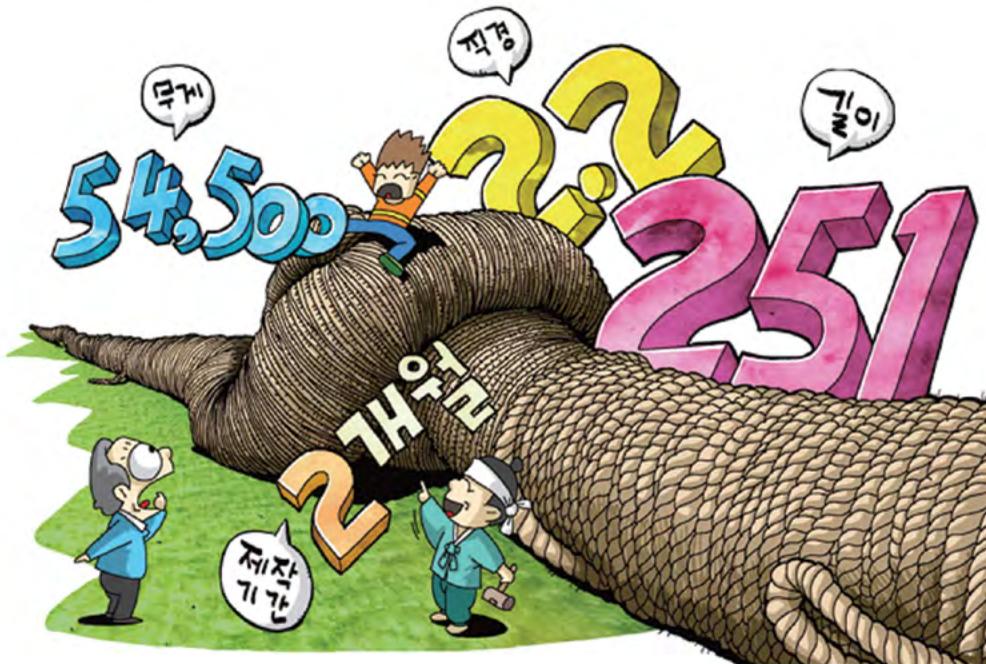
(1988년, 겨울 들판의 시)



(2003년, 아프간의 공주)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빛나는 우리문화재

분야를 막론한 세계 최고기록을 모아 해마다 발간하는 ‘기네스북’ .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솜씨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고유의 문화재도 독특한
이력을 갖고 기네스북에 오른 것들도 있다고 하니, 그 놀라운 기록을 따라가 본다.



세계 최대 줄 경남 무형문화재 제20호 의령큰줄팽기기

지푸라기인 벗짚을 손으로 꼬아 제작한 의령큰줄팽기기는 2005년 4월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현장에서 측량한 결과 길이 251m, 직경 2.2m, 무게 54.5t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줄이란 타이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무게를 재기 위해 300t급 고가 크레인과 지게차 2대가 동원됐으며 기네스북 본사는 기록 측정 과정을 검토하며 ‘천연 소재로 만든 가장 큰 줄’ 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줄을 만드는 데는 의령군 13개 읍, 면 232개 마을에서 1,400동의 벗짚이 사용되고 제작 기간만 꼬박 두 달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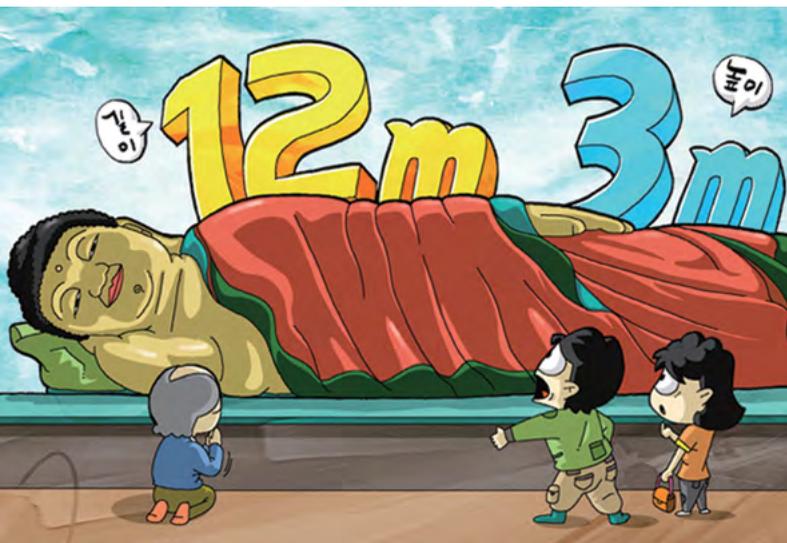
약 200여 년간 연례행사로 3년마다 이어온 의령큰줄팽기기는 경남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이며 농촌의 소박한 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잘 표현해 왔다. 전국 10여 곳에서 치르는 큰 줄 민속놀이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경험이 많은 원로의 지휘에 따라 고를 거는데 워낙 줄이 큰 편이라 쉽게 승부가 가려지지 않는다.

가장 큰 토기 단지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의 세계 최대 옹기



자연과 가장 가까운 옹기는 통기성과 방부성 등 때문에 음식을 잘 익게 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과학적인 그릇이다. 세계 유일한 옹기생산국인 우리나라에서도 50%가량의 옹기를 생산하고 있는 외고산 옹기마을은 1950년대부터 옹기를 구워왔다. 1960~70년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350여 명의 옹기 장인과 도공이 모여 옹기 생산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전통 옹기 장인들의 삶이자 일터인 국내 유일 옹기 집산촌 외고산 옹기마을은 울주군의 의뢰를 받아 세계 최대 옹기 제작에 들어갔다. 옹기마을 장인들은 5번의 실패를 딛고 높이 2m 29cm, 둘레 5m 20cm를 기록하는 세계 최대 옹기 제작에 성공해, 2010년 7월 기네스 세계기록 인증서를 받았다. 건조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소요할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으며 2010년 울산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룬 쾌거였다.

세계 최대 나무부처상 와우정사의 와불



대한 불교 열반종의 총 본산으로 1970년 실향 민인 해월 삼장법사가 민족 화합의 염원을 담아 세운 사찰인 와우정사. 연화산이 누운 소(蝸牛)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소가 부처를 뜻해 누워 있는 부처(와불)란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인도·미얀마·스리랑카·중국·태국 등에서 가져온 불상 3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와우정사에는 석가모니 불진신사리(佛眞身舍利), 파리어 대장경과 산스크리트어 장경(藏經) 등이 봉안되어 있다.

와우정사에 들어서면 시선을 끄는 8m 높이의 불두(佛頭)도 유명하지만 열반전에 있는 와불(臥佛)은 세계 최대 목불상이라는 기네스를 갖고 있다. 길이가 12m이며, 높이가 3m인 와불은 인도

네시아에서 들여온 향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팔베개를 하고 있는 부처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세계 기네스에 오른 만큼 압도적인 크기가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그 외에도 와우정사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 석가모니의 고행상과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때 타종했던 12t에 이르는 통일의 종이가 있다.

정리·이아람 일러스트·이근길



김 현 속 /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원
chenb1005@gmail.com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까라왕(karawang), 이곳에 위치한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택에서 우리 가족의 해외생활은 시작되었다. 낯선 땅에서 부딪치는 이국적인 문화는 털털한 내 성격 탓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공간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가령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 자카르타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일은 대전에서 서울로 여행하는 일과 다름이 없었다. ‘밥 한 끼 먹자고 왕복 네 시간을 차에서 보내야 하다니.....’

늘 이렇게 중얼거리며 남편을 따라 나섰지만 우리보다 먼저 온 선임들은 적응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 언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다른 섬으로 여행을 다니며 인도네시아의 광활함에 기가 질리기도 하였다.

지금도 이 땅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기서 20년 넘게 살며 보아 온 공간 중 좁지만 가장 아름다운 곳을 소개하고 싶다.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뒤뜰이다. 금잔디밭 주변으로 야자나무 일곱 그루, 감보자나무 네그루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곳, 오른쪽으로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이 자리 잡고 그 옆으로 테니스코트 입구가 보인다. 오른쪽 위편으로는 오각형의 큰 오두막이 있는데 오두막 가장자리엔 시멘트로 만든 긴 벤치가 빙 둘러져 있다.

오두막과 정원 사이로 바비큐와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바닥에는 대형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다. 그 보도블록을 뚫고 나온 서너 그루의 나무에는 가로등이 열매처럼 달려 있다 밤이 되면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다.

하루 중 가장 먼저 이곳의 문을 여는 건 이른 아침이 반가운 새들이다. 그들은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며 목청도 가다듬고 세수도 하고 깃털도 다듬는다.

그러다 해가 올라오기 전 먹이를 찾으러 서둘러 떠난다. 낮 동안 함박 피어 있다 밤에 생을 정리하는 캄보자 꽃잎들, 그들의 여운은 참으로 처연하다.

잔디위에 마지막 꽃자리를 펼쳐 놓기 때문이다. 요즘 골프에 빠진 이웃 대만 아저씨의 알록달록한 골프공이 날아와 또르르 그 자리 위에 머문다. 이 사람은 거의 매일 아침, 10년쯤 입은 듯 험령해진 메리야스에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골프피칭 연습을 한다. 이곳에 등장하는 유일한 복장이 불량한 존재이다. 그 다음엔 부지런한 주인을 만난 강아지들이 아침 산책을 한다. 밤이 편안했는지 가벼운 걸음으로 주인을 따르다 평소 즐겨 찾는 곳에서는 뒷다리를 들고 편안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들의 스트레스도 함께 배설 되리라.

햇볕이 순한 오전엔 유치원에도 가지 못할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유모와 아침 놀이를 한다. 아장아장 잔디밭을 걷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소꿉살림을 차리기도 한다. 그러다 금방 싫증을 내고 칭얼거리면 유모는 이내 살림을 걷고 아이 손을 끌며 퇴장해 버린다. 햇빛이 더 올라오기 전, 키 작은 청소부는 단정한 유니폼에 비와 쓰레받기 그리고 저보다도 큰 쓰레기통을 끌고 나타나 정겨운 비질 소리를 내며 캄보자의 마지막을 거두어간다. 이로써 오전의 마지막 등장인물이 된 그는 깨끗이 뒷정리를 하고 떠난다. 이렇게 말끔해진 잔디 무대 위로 태양은 지상에 올라온 그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뜨겁게 각인 시킨다. 야자수의 화려하고 촘촘한 빗살무늬를 잔디위에 빔어 놓는 솜씨는 언제나 감탄스럽다. 그의 몸이 뜨거울수록 야자 잎은 더 선명하게 그려진다. 긴 정원가위를 들고 가끔씩 나타나는 정원사 외에 평일 한낮에 이곳에 들어오는 이는 거의 없다.

열기가 수그러진 오후엔 아이들의 고함소리, 웃음소리로 활기가 돈다. 고만고만한 사내 녀석들이 공을 가지고 나와 차기도 하고, 새초롬 빛은 머리에 학교 유니폼을 입은 여자아이들은 그네에 앉아 몸을 빙빙 돌리며 야무진 입으로 쉴 새 없이 조잘 거린다. 이 시간에 운동을 나서는 늙수그레한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고 리드미컬하게 주변을 걷는다. 가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튀어 나오는 어린애들의 자전거에 멈칫하기도 한다. 태양이 마지막 빛을 모아 노을을 만들고 주변이 어스름해지면 아이들은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간다. 갑자기 정적이 돌고 먼 하늘에선 소리 없는 폭죽잔치가 벌어진다. 놀이동산의 마지막 피날레가 불꽃놀이인 것처럼.....

이 정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은 이쯤 된다. 하지만 큰 행사도 많이 열린다. 가끔씩 잔디위에 꽃 무대가 세워지고 인도네시아 전통복장을 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다름 아닌 누군가의 결혼식 채비이다. 각 지방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통혼례가 가감 없이 연출된다.

이곳만의 아늑함과 아름다움에 도취된 많은 이들이 그들의 특별한 추억을 새기는 곳으로 이곳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르바란이 지나고 한 달 후에 찾아오는 르바란 하지에 이곳은 신성한 곳으로 변한다. 아파트에 사는 재력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직원들을 위해 내어 놓는 소와 염소가 이슬람 의식에 따라 도살되고, 사람들은 고기보다 맛난 삶을 나누어 간다. 아무리 헤아려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면적과 달리 마음속에 남김없이 들어앉은 이 자그마한 공간, 소소한 일상에 행복이 숨어 있듯 작은 것에 담긴 큰 의미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오늘도 이곳, 나만의 뜰인 우리 아파트 정원에선 이토록 많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열대의 야자나무가 자라듯 아이들도 자라고, 그 열매가 노랗게 익어가듯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연륜도 더욱 익어만 간다.

인도네시아 민법(6)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8.12. 질권(Hak Gadai)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 또는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잡아 채무의 변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한 물건 또는 권리를 공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민법 제1150조 - 제1160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 시 질권이 설정된 물건 혹은 권리를 제3자에게 유치시킬 수 있다. 질권이 설정된 물건이나 권리를 채권자가 유치하지 않거나, 양자 합의로 제3자에게 유치하지 않고, 계속 채무자가 유치하는 경우에는 질권은 적법하지 않은 하자 질권이 된다. 질권 설정이 가능한 물건은 유형 동산 및 채권증서 같은 무형 동산이다.

* 질권 보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8.12.1. 주식이나 채권처럼 통상 재질권 설정을 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재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8.12.2.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직접 매각 혹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에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8.12.3.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 유지 및 보수에 지출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8.12.4. 채권 및 이자 완불시까지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계속 유치할 수 있다.

* 질권 보유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8.12.5.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매각하려면 사전에 매각 의사를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8.12.6. 채권자의 실수로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이 분실되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8.12.7.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

가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매각시에는 채권자는 매각 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고,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채권을 변제받고 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채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8.12.7.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 시에는 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채권자가 보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계약은 원인무효이다.

*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권은 실효한다.

8.12.8. 모든 채무를 변제하다.

8.12.9.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이 도난, 분실, 다른 이유로 없어지다.

8.12.10.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이 채권자의 유치에서 벗어나다.

8.12.11. 채권자가 자의로 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다.

8.13. 저당권(Hak Hipotek)

저당권이란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고 채무자 혹은 제3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 받는 약정 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1162조 - 제1232조). 저당권은 토지저당권에 관한 법률 1996년 제4호(토지건물 저당권법)가 발효되면서 토지와 토지에 만들어진 시설물이 토지저당권법의 관할이 되면서 저당권에서 제외되고, 현재는 비행기, 30톤 이상의 선박 등 법규에 의해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9. 토지건물 저당권(Hak Tanggungan)

토지건물 저당권은 일반법(Lex Generali)인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법(Lex Spesialis)인 토지건물 저당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물권임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물권과 함께 설명한다.

토지건물 저당권이란 채무자인 토지건물의 주인인 혹은 제3자의 토지건물을 채권자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주인인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점유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여 제공된 토지건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물권이다. 토지건물 담보물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장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9.1. 토지건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 9.1.1. 소유권 토지(Hak Milik)
- 9.1.2. 경작권 토지(Hak Guna Usaha)
- 9.1.3. 건축권 토지(Hak Guna Bangunan)
- 9.1.4. 국가소유 사용권 토지(Hak Pakai Milik Negara)
- 9.1.5. 상기 토지에 있는 건축물, 식물 및 영구 시설물 등

9.2. 토지건물 저당권은 채권에 종속하는 권리이다.

토지건물 저당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고 채권에 종속하는 권리이다. Loan Agreement 혹은 채무확인서 등으로 채권을 발생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토지건물 저당권을 발생시킨다. 채무자가 인도네시아 법인 혹은 자연인인 경우에는 토지건물 저당권 서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한다.

9.3. 토지건물 저당권으로 커버되는 채무의 범위

- 9.3.1. 이미 발생한 채무
- 9.3.2. 금액이 이미 합의됐거나 금액 계산 방법을 이미 합의한 미래채무

9.4. 토지건물 저당권 제공증서 작성

채권채무 약정서는 당사자끼리 일반 서류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토지건물저당권 제공증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인도네시아어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한다. 즉 인도네시아 공증인(Notaris) 혹은 토지거래문서작성관(P.P.A.T)이 작성해야 한다. 토지건물 저당권 제공증서는 피위임자 즉 채권자가 제 삼자에게 재위임을 불허한다.

9.5. 토지건물 저당권 제공증서 작성 시한

- 9.5.1. 토지에 대한 권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건물 저당권 증명서 작성은 저당권 설정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 9.5.2. 토지권리 미등록 토지에 대한 토지건물 저당권 제공증서 작성은 저당권 설정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3달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9.6. 토지건물 저당권증서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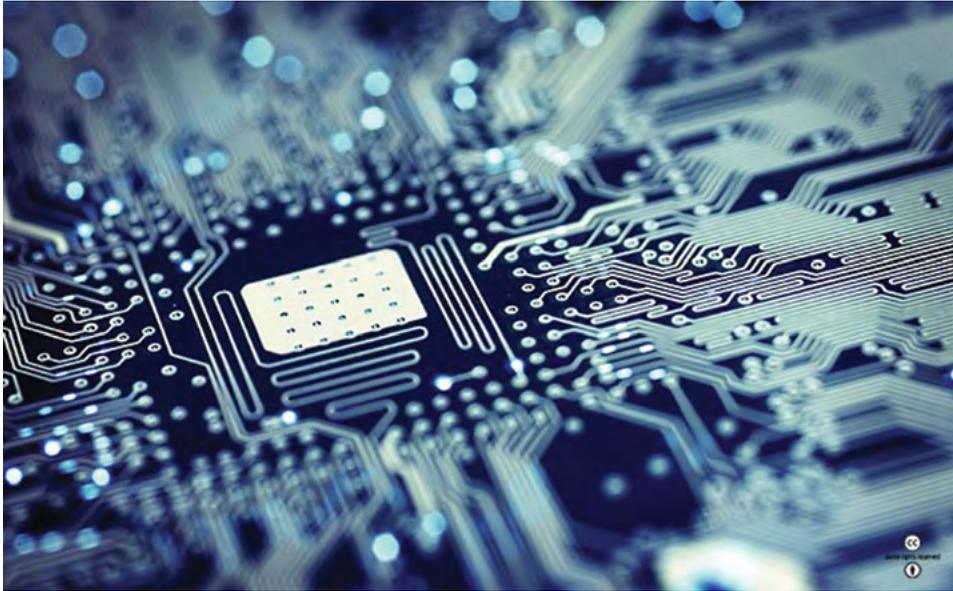
토지건물 저당권은 작성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토지청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은 토지건물저당권 증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9.7. 토지건물 저당권 등기권리증서

- 9.7.1. 채권자가 토지건물 저당권 증서를 토지청에 등기하면 토지청은 채권자에게 토지건물 저당권 등기권리증서(Sertifikat Hak Tanggungan)를 발급해준다.
- 9.7.2. 토지건물 저당권 등기권리증서 서두에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DEMI KEADILAN BERDASARKAN KETUHANAN YANG MAHA ESA"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여 판결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문과 동시에 법원의 압류집행 허가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저당권 보유자는 별도의 소송이나 압류집행 허가 수속없이 저당 물건을 법에 정한대로 강제 처분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철학, 욕망을 마주하다] 가상공간을 통해 확장되는 욕망



기술은 욕망의 구조에 충격을 가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이전의 어떤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초래했다. 특히 21세기의 기술 발전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눈부신 기술 발전은 경제 성장과 수익성, 생활의 편의성, 전투의 효율성,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경제적인 부만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여건이나 사고방식, 생활 감각에도 영향을 주고 욕망의 구조에도 충격을 가한다.

기술과 욕망의 관계는 도가학파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다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과 욕망에 가하는 충격은 뜻밖에도 2천여 년 전에 도가학파가 제기했었다. 장자가 지은 <남화경>의 '천지' 편에 두레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공(공자의 제자)과 노인의 일화가 나온다. 20세기 양자역학의 거장인 하이젠베르크가 <물리학자의 자연관>에서 이 일화를 언급했고 미디어 이론가인 매클루언도 <미디어의 이해>에서 그의 언급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일화는 다음과 같다. 자공이 진나라로 가던 길에 어떤 노인이 우물에 들어가 항아리로 물을 퍼서 밭에 대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노인이 무척 힘들어하는 걸 안타깝게 여겨 두레박을 사용하면 수월하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노인에게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도리어 얼굴을 붉히며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에 따르는 일이 생기고 기계에 따르는 일이 생기면 기계에 사로잡힌 마음이 생기요. 기계에 사로잡힌 마음이 생기면 순박한 성품이 없어지고 순박한 성품이 없어지면 마음 작용이 안정되지 않아요. 마음 작용이 안정되지 않는 자들에겐 도가 깃들지 않소.” 라고 반박했다.

노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두레박 기술이 사람의 마음과 욕망에 충격을 가한다는 것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두레박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아주 하찮은 기술에 불과하지만, 편리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순박한 성품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과 나노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은 욕망을 환상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욕망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술의 발전은 욕망의 구조를 바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아이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노는 아이의 욕망 구조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욕망의 영토를 확장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가상공간을 통해 욕망의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기술은 신문과 라디오, TV 등 과거의 대중매체와는 다른 소셜 미디어를 등장시켰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욕망을 관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디지털 기술이 충격을 가하는 욕망의 특징을 살펴보자. 가상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드러낼 수 없거나 드러내기 어려운 인간의 은밀한 욕망이 거침없이 표출된다. 이 욕망에는 현실의 금기와 제약으로 채울 수 없는 엽기적 성욕이나 공격충동, 파괴충동 등이 있다.

이런 욕망은 폭력적인 게임이나 포르노 등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포르노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미 일상화되었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구현하는 기술로 게임하듯 생생하게 실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폭력과 섹스를 추구하는 욕망은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자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망은 점점 더 큰 자극을 받으려는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섹스의 경우에는 포르노의 범람이나 섹스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 사랑의 감정이 배제된 채 성적 자극과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더욱 커질 것이다.

가상세계의 욕망은 증폭될 뿐 충족되지 않는다

누구나 현실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의 자아와는 다른 자아를 꿈꾸고 추구한다. 설령 현실에 만족해도 가끔씩 현재의 자아와는 다른 자아로 살아가기를 욕망할 수 있다. 이런 욕망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세계가 나오기 전에는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리니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거상과 같은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게임(MMORPG)의 환상적으로 시뮬레이션된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은 전사나 마법사, 요정, 상인이 되어 현재의 자아와는 전혀 다른 자아를 아바타를 통해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이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릴 수도 있다.





가상현실 게임인 세컨드라이프
 <출처: (cc) HyacintheLuynes at Wikimedia.org>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명품 소비를 통해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아 탐구는 가상세계로 이어져서 자아탐구의 욕망을 아바타를 통해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도 디지털 기술로 증폭될 뿐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자아란 고정불변의 실체도 아니고 불투명해서 현실에서든 가상세계에서든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은 소통과 과시, 즉시성의 욕망을 키운다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적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 친구들과 연결되어 소통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그런 욕망을 심화시킨다. 페이스북에서는 일인 방송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욕망은 소셜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심화된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누구든 현실의 나를

과장해서 포장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시된 내용은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 현실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 짜릿한 체험을 할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은 즉시성에 대한 욕망을 키우기도 한다. 말을 타거나 걸어 다녔던 옛날에는 느림과 기다림이 생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러나 21세기는 느림과 기다림이 더 이상 당연시될 수 없는 시대다.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어디서든 즉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품을 주문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즐기려는 욕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조홍길/부산대 강사]

(다음호에 계속)



인니 문화부 주최로 “문화 사하бат 세미나” 개최

Workshop and Seminar Sahabat Budaya Indonesia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인도네시아 문화부 General Directorate of Culture of Republic of Indonesia 주최로 “인도네시아 문화의 친한 친구” SAHABAT BUDAYA INDONESIA라는 제목의 워크샵 및 세미나 행사가 35개국에서 총 75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밀레니움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44명의 인도네시아 정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과 30여명의 대사관 소속 인도네시아 문화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여 대사관 한국문화원의 요청으로 한인니문화 연구원의 사공경 원장과 헤리티지 코리아섹션의 이수진 회장이 참가하였다.

이번 2박 3일간의 워크샵 일정 중에 7000여점의 와양 수집가 그레고리 처칠의 와양 소개 발표회가 있었다. 이어지는 순서는 가믈란 연주 실습, 바틱제작, 전통 춤 Indang 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29일에는 보고르의 전통 문화 마을 Sindangbarang을 방문하여 전통 마을의 삶을 들여다보고 워크샵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 인도네시아 문화를 익히고 알게 되며, 우리 모두 진정한 의미의 문화 친구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문화부는 오는 2016년 10월 10일~13일 발리에서 세계 문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JIKS

18세 이상 재학생에게 유학비자 관련 서류 제공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인니 이민국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인니 체류가 불가능한 JIKS 재학생들에게 유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학생 비자는 학부모의 체류근거와 관계없이 학교에게 직접 학생의 체류근거를 제공하는 비자이다.

그동안 JIKS는 유학비자를 위한 서류를 제공하는 대신에 해당 학생들에게 '가족초청 사회문화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으나 최근 외국인에 대한 비자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학

생들의 불안정한 신분 상황이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 유학비자 관련서류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JIKS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5월 1일 이후부터 일부 학생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지원하는 등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정비해왔다. JIKS 학부모 중에서 18세이상 자녀의 유학생 비자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JIKS 행정실의 KITAS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Georgian Furniture**

17~18세기 영국왕실가구

Showroom : Jl. Taman Cilandak IV-47 Jakarta Selatan

 (021) 750-6109, 766-0364, 0816776344

Open : AM 8:00 - PM 5:00

2016년 6월 한인회 법인 및 임원 잔조금 납부 명단

2016년 6월1일-6월30일

| 번호 | 직책 | 성명 | 회사명 | 납입 연도 | 금 액 | |
|------|----------|----------------|-----------------------------|----------|------------|---------------|
| | | | | | USD | IDR |
| 1 | 한인회 법인회원 | Achmad Baiquni | BANK NEGARA INDONESIA | 2016 | | 135,000,000 |
| 67 | 한인회 이사 | 석웅치 | DAYUP INDO | 2016 | | 13,200,000 |
| 68 | 한인회 이사 | 홍기호 | AURORA INT'L CO. | 2016 | | 13,200,000 |
| 69 | 한인회 이사 | 김육찬 | INDODEV NIAGA INTERNET | 2016 | | 13,200,000 |
| 70 | 한인회 이사 | 오세명 | SUNG LIM CHEMICAL | 2016 | | 13,200,000 |
| 71 | 한인회 이사 | 이윤상 | PAKUWON GROUP | 2016 | | 13,200,000 |
| 72 | 한인회 이사 | 최태진 | KOLON INA | 2016 | | 13,200,000 |
| 73 | 한인회 이사 | 배재호 | SERIM INDONESIA | 2016 | | 13,200,000 |
| 74 | 한인회 이사 | 유주완 | FEEL BUY INDONESIA | 2016 | | 13,200,000 |
| 75 | 한인회 이사 | 이주한 | MEDISON JAYA RAYA | 2016 | | 13,200,000 |
| 76 | 한인회 이사 | 송판원 | KORYE POLIMER | 2016 | | 13,200,000 |
| 77 | 한인회 부회장 | 배응식 | FIKI GROUP NUSANTARA | 2016 | 5,000 | |
| 78 | 한인회 자문위원 | 박헌식 | DONGAN KREASI INDONESIA | 2016 | | 13,200,000 |
| 79 | 한인회 부회장 | 박현순 | EDUPHIL INT'L | 2016 | | 33,500,000 |
| 80 | 한인회 이사 | 김호권 | SUNSHINE TECHNICA | 2016 | | 13,200,000 |
| 81 | 한인회 이사 | 이상일 | UNGARAN INDAH BUSANA | 2016 | 1,000 | |
| 82 | 한인회 고문 | 조규철 | DONG JUNG INDONESIA | 2016 | | 67,000,000 |
| 83 | 한인회 자문위원 | 이승민 | YSM & PARTNERS | 2016 | 1,000 | |
| 84 | 한인회 자문위원 | 최병우 | ANEKA PANEL INDONESIA | 2016 | 1,000 | |
| 85 | 한인회 이사 | 이강현 | SAMSUNG ELECTRONICS IND. | 2016 | 1,000 | |
| 86 | 한인회 이사 | 김두련 | MIWON INDONESIA | 2016 | 1,000 | |
| 87 | 한인회 이사 | 김민규 | WOORI CONSULTING&WOORI TOUR | 2016 | 1,000 | |
| 88 | 한인회 이사 | 김서경 | ACCENTUATES | 2016 | 1,000 | |
| 89 | 한인회 이사 | 김송정 | UNICON INDO MESIN | 2016 | 1,000 | |
| 90 | 한인회 이사 | 김영울 | SUNG CHANG INDONESIA | 2016 | 1,000 | |
| 91 | 한인회 이사 | 성예식 | MISUNG INDONESIA | 2016 | 1,000 | |
| 92 | 한인회 이사 | 승범수 | MIRINA NUSANTARA | 2016 | 1,000 | |
| 93 | 한인회 이사 | 신만기 | PARKLAND WORLD INDONESIA | 2016 | 1,000 | |
| 94 | 한인회 이사 | 안광진 | ERNST&YOUNG INDONESIA | 2016 | 1,000 | |
| 95 | 한인회 이사 | 안창섭 | PETRASAKTI MADYATAMA | 2016 | 1,000 | |
| 96 | 한인회 이사 | 윤주경 | LOTTE MART INDONESIA | 2016 | 1,000 | |
| 97 | 한인회 이사 | 윤태현 | DREAM SENTOSA | 2016 | 1,000 | |
| 98 | 한인회 이사 | 이세호 | GORI GLOBAL INDONESIA | 2016 | 1,000 | |
| 99 | 한인회 이사 | 이완주 | OCEAN ASIA INDUSTRY | 2016 | 1,000 | |
| 100 | 한인회 이사 | 최원혁 | HILON FELT | 2016 | 1,000 | |
| 101 | 한인회 이사 | 표기훈 | HIT | 2016 | 1,000 | |
| 102 | 한인회 이사 | 홍종서 | ARION TECH INDONESIA | 2016 | 1,000 | |
| 103 | 한인회 명예고문 | 신기엽 | HANINDO EXPRESS UTAMA | 2016 | | 67,000,000 |
| 총 금액 | | | | | US\$26,000 | Rp460,900,000 |

2016년 6월 안인외 개인외비 납부 명단

2016년 6월 30일 기준(접수순)

| 번호 | 성명 | 납입연도 | 금액 (IDR) |
|------|-----|------|--------------|
| 120 | 홍광호 | 2016 | 300,000 |
| 121 | 김호권 | 2016 | 300,000 |
| 122 | 문상은 | 2016 | 300,000 |
| 123 | 이호덕 | 2016 | 300,000 |
| 124 | 이주한 | 2016 | 300,000 |
| 125 | 김영주 | 2016 | 300,000 |
| 126 | 김필수 | 2016 | 300,000 |
| 127 | 김송정 | 2016 | 300,000 |
| 128 | 이상일 | 2016 | 300,000 |
| 총 금액 | | | Rp.2,700,000 |

불우이웃돕기 및 특별 찬조금 납부 명단

| 번호 | 성명 | 회사명 | 금액 |
|------|-----|-------------------------------|----------------|
| 1 | 이원만 | | 3,000,000 |
| 2 | 강호성 |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 100,000,000 |
| 총 금액 | | | Rp.103.000,000 |

한인뉴스 20주년 7월 특대호 광고우원사

가나다순

| 순번 | 성명 | 후원업체명 |
|----|-----|------------------------|
| 1 | 곽봉규 | 처음처럼 |
| 2 | 김균 | 꼬기꼬기 |
| 3 | 김민규 | 우리 컨설팅/투어 |
| 4 | 김우재 | KOIN BUMI(무궁화) |
| 5 | 김우현 | SUNJIN TEXTILE CO. |
| 6 | 김종림 | 재인도네시아봉제협의회 |
| 7 | 김종성 | 인도양 로펌 |
| 8 | 김평수 | 토박 |
| 9 | 김호권 | SUNSHINE TECHNICA |
| 10 | 남기창 | 유미 |
| 11 | 박상천 | 현대중장비 |
| 12 | 박성근 | KENLEE INDONESIA |
| 13 | 배정옥 | AGRI TRADING |
| 14 | 서영률 | PRATAMA ABADI INDUSTRI |
| 15 | 성기채 | 웰빙쌀 |
| 16 | 송창근 | KMK |
| 17 | 송판원 | KORYE POLIMER |
| 18 | 신기엽 | 한인도 익스프레스 우따마 |

| 순번 | 성명 | 후원업체명 |
|----|-----|--------------------|
| 19 | 신성철 | 데일리인도네시아 |
| 20 | 신현호 | 롯데마트 |
| 21 | 안미경 | 나래투어 |
| 22 | 안화숙 | 알림인도 |
| 23 | 양태화 | 태원 |
| 24 | 엄상배 | 로템투어 |
| 25 | 오영란 | ARANG 22 |
| 26 | 유재욱 | 면의전설/청수/킹덤 |
| 27 | 윤조현 | 한국세라믹 |
| 28 | 윤청룡 | SRIJAYASARA UTAMA |
| 29 | 이승민 | Y S M |
| 30 | 이정호 | KORNET LOGISTICS |
| 31 | 조규철 | 동충 |
| 32 | 조현보 | KOMTRANDO |
| 33 | 최광수 | BIGSATAR INDONESIA |
| 34 | 하영빈 | ALL THAT TEAK |
| 35 | 한경순 | 조지안 퍼니처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 |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BANK KEB HANA INDONESIA | |
|---------------|--------------------------------|-----------------------------|---------------------------------|
| 계좌번호 (루피아) | Rp. A/C NO: 100-913-000-538 | Rp. A/C NO: 220-200-5949 | Rp. A/C NO: 001-001-100-2049 |
| 예금주 | ASOSIASI KOREA | YAYASAN ASOSIASI KOREA |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통역봉사자(안인외 소속) 모집 안내

자격: 인도네시아거주, 인니어 능통

연령: 제한없음

인원: 약간명

전화 : (021) 521-2515

지역 한인회 주소록

2016년 6월

| 번호 | 지역 | 직위 | 성명 | 휴대폰 |
|----|----------------|--------|-------|----------------|
| 1 | 발리 | 회장 | 안 복 희 | 0813-3808-6990 |
| | | 부회장 | 편 성 호 | 0812-389-0694 |
| | | 부회장 | 윤 경 희 | 0811-385-841 |
| | | 수석 총무 | 최 경 희 | |
| | | 총무 | 송 학 자 | 0812-362-3000 |
| | | 총무 | 손 민 석 | 0858-5732-0669 |
| 2 | 반둥 | 회장 | 엄 정 호 | 0812-201-8309 |
| | | 수석 부회장 | | 현재 공석 |
| | | 사무 국장 | 남 상 일 | 0812-2400-0303 |
| 3 | 케프리주 바탐 | 회장 | 공 자 영 | 0811-691-826 |
| | | 수석 부회장 | 주 정 만 | 0812-704-5030 |
| | | 사무 국장 | 정 규 철 | 0812-701-6090 |
| | | 총무 | 이 상 구 | 0821-7356-8405 |
| 4 | 보고르 | 회장 | 이 철 훈 | 0811-112-179 |
| | | 총무 | 임 성 필 | 0819-707-107 |
| 5 | 메단 | 회장 | 홍 상 철 | 0811-160-8724 |
| | | 총무 | 손 근 환 | 0812-655-9418 |
| 6 | 수까부미 | 회장 | 김 흥 기 | 0811-111-5208 |
| | | 부회장 | | 현재 공석 |
| 7 | 동부자바 (수라바야) | 회장 | 배 춘 식 | 0811-332-4001 |
| | | 수석 부회장 | 이 경 윤 | 0817-321-833 |
| | | 사무 총장 | 김 태 현 | 0818-321-332 |
| | | 수석 총무 | 정 상 원 | 0812-3373-8798 |
| | | 총무 | 박 한 진 | 0813-5274-8703 |
| | | 총무 | 배 기 보 | 0812-3251-5518 |
| 8 | 중부자바 (스마랑) | 회장 | 김 소 웅 | 0811-278-8909 |
| | | 사무 국장 | 채 환 | 0822-2021-5725 |
| | | 사무 총무 | 이 승 현 | 0811-978-0282 |
| 9 | 족자카르타 | 회장 | 박 병 업 | 0821-3352-6380 |
| | | 총무 | 조 용 재 | 0815-4880-0256 |
| 10 | 즈파라 | 회장 | 박 상 규 | 0812-2523-7001 |
| | | 수석 총무 | 조 영 성 | 0813-9032-3355 |
| | | 총무 | 양 세 환 | 0822-2719-9135 |
| 11 | 땅그랑 반뜰 | 회장 | 오 세 명 | 0816-187-8582 |
| | | 간사 | 허 미 숙 | 0818-660-732 |
| 12 | 마카사르 술라웨시 | 회장 | 이 재 호 | 0811-444-190 |
| | | 총무 | 한 정 곤 | 0811-419-200 |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E** pt.innomate@gmail.com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 | | |
|--------------|---------------------|----------|
| 한국대사관 | 2967 | 2555 |
| 영사과 | 2967 | 2580 |
|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 2967 | 2570 |
|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 574 | 1522 |
| 한국국제협력단 | 29921900,29922100-1 | |
| 코리아센터빌딩 | 525 | 6525 |
| 한국산업인력공단 | 527 | 2612 |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 2903 | 5650 |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 5785-3030 | |
| 한인니문화연구원 | 0816 | 1909 976 |
| 중소기업진흥공단 | 5292 | 1302 |

● **한인단체**

| | | | |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521 | 2515 | |
| 한국국제부인회 | 0817 | 110 234 |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081511708882 | | |
| 국악사랑단체 | 0811 | 90 2003 | |
| 즈빠라한인회 | 0291 | 598593 | |
| (총무 조영성 | 0813 | 90323355) | |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 **한인잡지**

| | | |
|------|------|-----------|
| 한인뉴스 | 521 | 2515 |
| 교민세계 | 739 | 9025 |
| 벼룩시장 | 0815 | 1071 0023 |
| 한울 | 452 | 5655 |
| 여명 | 9955 | 5859 |

● **교육기관**

| | | |
|------------------|------|---------|
| 한국국제 학교 (JIKS) | 844 | 4958-61 |
| 간디국제 학교 | 690 | 9902 |
|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 7884 | 1226 |
| 싱가폴국제 학교 (SIS) | 7591 | 4414 |
| (골라빠가딩) | 460 | 8888 |
| 영국국제 학교 (BIS) | 745 | 1670 |

| | | |
|-----------------------|---------|---------|
|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 750 | 3640 |
| 북국제 학교 (NJIS) | 453 | 1001 |
| 호주국제 학교 (AIS) | 782 | 1141 |
| 일본학교 (JJS) | 745 | 4130 |
|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 782 | 3929 |
| 독일국제 학교(DIS) | 537 | 8080 |
| TAIPEI 국제 학교(JITS) | 452 | 3273 |
| SPH (땅그랑) | 546 | 0234 |
| (찌까랑) | 897 | 2786 |
| RICS | 7590 | 3342 |
|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 0812971 | 2306 |
| LYCEE Int. FRANCAIS | 750 | 3062 |
| JIPS | 3004 | 2885 |
| JIMS | 744 | 4860 |
| PAKISTANEMBASSYSCHOOL | 3904137 | |
| ACG 국제 학교 | 780 | 5636 |
| ICSCE | 780 | 7313 |
|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 7590 | 8820/50 |

● **유치원**

| | | |
|---------------|------|------|
| KIDS Island | 765 | 6588 |
| Bambino (위자야) | 720 | 3356 |
| (빠뜨라 꾸닝안) | 8378 | 3783 |
| 사랑 | 835 | 1540 |
| 성모 | 7884 | 2467 |
| 하나 | 844 | 5283 |
| 리틀램스쿨(자카르타) | 750 | 0739 |
| (골라빠가딩) | 471 | 8047 |
| (땅그랑) | 558 | 7227 |

● **골프장**

| | | |
|-------------------|----------|------|
| BOGOR RAYA | 0251)827 | 1888 |
| CENKARENG | 5591 | 1111 |
| CILANGKAP | 8459 | 5687 |
| CIKAMPEK | 0264)317 | 007 |
| DAMAI INDAH [BSD] | 537 | 0290 |
| EMERALDA | 875 | 9019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 가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 |
|-----------------|----------|------|
| GADING RAYA | 546 | 7668 |
| GUNUNG GEULIS | 0251)825 | 7500 |
| HALIM 1 | 800 | 5762 |
| HALIM 2 | 809 | 0729 |
| IMPERIAL | 546 | 0120 |
| JABABEKA | 893 | 6148 |
| JAGORAWI | 875 | 3810 |
| KAPUK | 588 | 2388 |
| KARAWANG | 0267)405 | 888 |
| KEDATON | 5930 | 0000 |
| KEMAYORAN | 654 | 1156 |
| KRAKATAU | 0254)372 | 030 |
| LIDO | 0251)822 | 1008 |
| MATOA | 787 | 0864 |
| MODERN | 552 | 9228 |
| PALM HILL | 8795 | 4307 |
| PANGKALAN JATI | 751 | 3326 |
| PERMATA SENTUL | 8795 | 1787 |
| PONDOK CABE | 740 | 5385 |
| PONDOK INDAH | 769 | 4906 |
| RAINBOW HILL | 0251)827 | 2111 |
| RANCAMAYA | 0251)824 | 2282 |
| RAWAMANGUN | 475 | 4732 |
| ROVER SIDE | 867 | 1533 |
| ROYAL JAKARTA | 8088 | 4488 |
| SAWANGAN BARU | 740 | 2194 |
| SEDANA | 0267)644 | 730 |
| SENTUL HIGHLAND | 8796 | 0266 |
| TAKARA | 599 | 1227 |

●골프교습

| | | |
|---------------|------|---------|
| Easy Golf | 801 | 2048 |
|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 392 | 178 |
| 골프투어 자카르타 | 7013 | 8166 |
| 심스골프 | 570 | 3063 |
| 배준원골프교실 | 781 | 7679 |
| PGA골프레슨(까라와찌) | 5577 | 8936 |
|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 0811 | 143 437 |

●골프샵

| | | |
|---------------------|------|--------|
| 교민프로골프샵 | 5577 | 1006 |
| 따만사리골프샵 | 546 | 0838 |
| 레네세계골프 | 739 | 8312 |
| 한양(골라빠가딩) | 450 | 4364 |
| EFC Golf | 725 | 0057 |
| 혼마플레이골프 | 344 | 2540 |
| MFS골프 | 725 | 0057 |
| Play Golf | 722 | 9587 |
| 월드 | 552 | 7434 |
| Bridgestone Golf | 7279 | 8123 |
| Love Green Halim | 8778 | 2771~2 |
| Love Green Cikarang | 8990 | 7881 |

동문회

●중/고교

| | | |
|--------------|------|-----------|
| 강경상고(민병무) | 0818 | 879 149 |
| 경기고(구본찬) | 780 | 0204 |
| 경남공고(이봉규) | 0812 | 902 3800 |
| 경남중고(정낙현) | 0813 | 8293 8557 |
| 경동고(강성원) | 0812 | 8830 8566 |
| 경북고(노경인) | 0815 | 1901 0575 |
| 경북고(이병수) | 0816 | 181 3615 |
| 경성고(박영권) | 0813 | 8805 1296 |
| 경신고(김진태) | 7883 | 6372 |
| 경주중고(김홍규) | 0818 | 141 635 |
|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 0815 | 1428 9329 |
| 계성고(최상록) | 0811 | 249 038 |
| 광주고(선홍규) | 0813 | 1536 5223 |
| 광주 사레시오중고 | 548 | 5112 |
|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 527 | 0150 |
| 광주 금호고 | 0815 | 1903 5802 |
| 남성중고(임석균) | 515 | 9277 |
| 대구고(김현철) | 0818 | 718 535 |
| 대구대륜고(노태진) | 0816 | 835 185 |
| 대구 상고(김진우) | 825 | 0581 |
| 대구 영남고(오승현) | 0858 | 4653 6899 |
| 대광중고(이민규) | 0816 | 880 018 |
| 대원외고(권기훈) | 0877 | 7779 4668 |
| 대전고(윤내선) | 426 | 2954 |
| 덕수상고(정천수) | 0816 | 114 7364 |
| 동대문상고(곽기석) | 867 | 3837 |
| 동래고(박형남) | 0815 | 1906 0877 |
| 동성고(홍창형) | 0812 | 102 2670 |
| 동아고(여병철) | 0811 | 187 554 |
| 동인고(차명훈) | 0815 | 950 0461 |
| 마상고(김만수) | 0811 | 122 5239 |
| 목포중고(김용진) | 568 | 0517 |
| 배재학당(이성수) | 0815 | 1428 0295 |
| 배정고(김상훈) | 0817 | 659 9473 |
| 보성고(김유호) | 5940 | 1282 |
| 보성교우회(박지배) | 0811 | 976 537 |
| 부산기고(채윤규) | 026 | 751 2483 |
| 부산 동고(이동훈) | 0811 | 190 7967 |
| 부산상고(박갑수) | 0812 | 952 5404 |
| 부산 중앙고(송명석) | 0811 | 834 412 |
| 부산고(조명국) | 0811 | 1046255 |
| 부산 외고(선진세) | 0813 | 8536 8434 |
| 서울고(신균) | 0811 | 157 450 |
| 서울대신고(서영석) | 0813 | 1139 7145 |
| 선린상고(김기석) | 0817 | 648 9321 |
| 성남고(성기채) | 0815 | 1070 2424 |
| 성동고(구본욱) | 025 | 161 1466 |
| 성원고(강변창) | 0811 | 891 458 |
| 수원 유신고(안성욱) | 0813 | 1626 7777 |

| | |
|---------------|----------------|
| 순천중고(김정욱) | 081519329650 |
| 송문고(김영언) | 0816 937 269 |
| 신일고(금민철) | 0816 864 677 |
| 심인고(김종필) | 0815 1305 4150 |
| 안양공고(조한영) | 0812 859 8483 |
| 양정고(이종환) | 0815 1033 1001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등포고(정하승) | 0811 140 334 |
| 오산고(조동혁) | 0815 7432 7769 |
| 용산고(박승래) | 0813 1842 1269 |
| 유한공고(이선용) | 0812 071 210 |
|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 0818 912 698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전주고(남택열) | 0811 877 108 |
| 정석향공고(백승엽) | 0811 903 144 |
| 중동고(최무종) | 0811 8532 0354 |
| 중앙고(정재익) | 0811 910 013 |
| 진주 대아고(김영진) | 5522 0041 |
| 청주고(조영선) | 0815 1901 4477 |
| 충남고(이수현) | 0811 175 126 |
| 한성고(박창화) | 0816 780 751 |
| 해광고(서동희) | 0813 9839 9286 |
| 휘문고(맹중호) | 0818 973 986 |

• 대학교

| | |
|--------------|----------------|
| 강원대(송영석) | 0812 1326 5977 |
| 건국대(조선용) | 0811 910 6707 |
| 경기대(인기상) | 739 7625 |
| 경북대(김규식) | 0816 182 3748 |
| 경희대(양승민) | 0811 164 367 |
| 계명대(백성영) | 871 2371 |
| 고려대(이광수) | 0813 8026 1353 |
|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 08179187100 |
| 부경대(이제원) | 0812 968 9797 |
| 동국대(염정운) | 0817 681 8599 |
| 동아대(서종근) | 0811 850 212 |
| 목포해양대(이종재) | 08111 975 205 |
| 부산대(유제상) | 0811 841 510 |
| 부산외대(이동훈) | 0816 781 564 |
| 서강대(이철우) | 08121177399 |
| 서울대(정무웅) | 797 5959 |
| 성균관대(김진태) | 0818 953 949 |
| 숙명여대(서영자) | 0815 1324 2799 |
| 숭실대(김학수) | 0811 879 701 |
| 아주대(서보상) | 0815 1902 4220 |
| 연세대(금민철) | 0816 864 677 |
| 영남대(김상수) | 0812 103 8707 |
| 영산대(최재혁) | 590 0401 |
| 울산대(최재호) | 723 0917 |
| 이화여대(김미송) | 0811 122 0566 |
| 인하대(이기홍) | 0816 812 507 |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 |
|-------------------|----------------|
| 전남대(최병욱) | 0816 188 1233 |
| 전북대(최성호) | 0815 7232 3689 |
| 중앙대(손동근) | 0811 844 247 |
| 충남대(노제익) | 452 6968 |
| 충북대(최병인) | 0817 778 857 |
| 한국외대(신성철) | 0818 936 943 |
| 한국해양대(이승준) | 0811 190 7718 |
| 한양대(임영석) | 0811 944 338 |
| ROTC(인니지회사무국장한규성) | 0818 890 571 |

• 은행

| | |
|-------|------------|
| 수출입은행 | 525 7261 |
| 외환은행 | 574 1030 |
| 우리은행 | 2996 1915 |
| 하나은행 | 522 0222~3 |

• 종교 단체

| | |
|-----------|-----------|
| <기독교> | |
| 꿈이있는교회 | 548 3044 |
| 늘푸른교회 | 766 9191 |
| 동부교회 | 4587 7317 |
| 연합교회 | 7279 5625 |
| 예사랑침례교회 | 4176 5140 |
| 소망교회 | 739 6487 |
| 순복음교회 | 739 2373 |
| 안디옥교회 | 751 5525 |
| 열린교회 | 844 5537 |
| 위자야한인교회 | 7279 3145 |
| 자카르타사랑의교회 | 450 7324 |
| 주님의교회 | 831 3843 |
| 중앙감리교회 | 533 2749 |
| 찌까람임마누엘교회 | 8990 3133 |
| 참빛교회 | 718 3535 |
| 한마음교회 | 739 5035 |
| 한인성요셉성당 | 7884 3782 |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미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 | |
|------------------------|----------------|
| 사공경 회장 | 0816 1909 976 |
| 강희중 고문 | 0816 798 221 |
|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 0811 9103 108 |
|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 0878 5480 4815 |
|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 0811 149 586 |
|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 0816 1300 210 |
|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 0816 745 384 |
|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0812 1316 2064 |
| <협력단체장> | |
| 서예협회장 : 양승식 | 0811 111 363 |
|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 0811 834 026 |
|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 0878 5480 4815 |

| | |
|--------------------|----------------|
|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 0812 8178 050 |
| 한바패 회장 : 박형동 | 0811 149 586 |
|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 0811 9005 639 |
|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 0811 876 547 |
|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 0816 1300 210 |
|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 0811 902 003 |
| 월화차 회장 : 이춘순 | 0878 8333 3359 |
|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 0811 9103 108 |
|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 0815 9101 898 |
|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 0816 745 384 |
|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 0812 1316 2064 |
| <촉탁전문위원> | |
|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 0816 883 223 |
| * 최석일 : 문화컨텐츠 | 0818 901 609 |

| | |
|------------|-----------|
| 하나마트 | 8459 0064 |
| 한일마트 | 723 2086 |
| 한일마트(땅그랑) | 5577 8633 |
| G-마트(찌부부르) | 8459 9858 |
| K-마트 | 725 2122 |
| 위자야마트 | 726 9049 |

●식당

| | |
|---------|----------------|
| 하나 | 0254-393 2146 |
| 가나 | 558 2214 |
| 가야성 | 725 7373 |
| 가호 | 5289 7044 |
| 강남 | 0812 2323 5119 |
| 강남스타일 | 2952 8443 |
| 고주몽 | 7279 6709 |
| 고주몽 | 8984 1000 |
| 김군 고기고기 | 726 4999 |
| 김삿갓 | 722 2230 |
| 대가 | 8459 2871 |
| 대감집 | 720 7530 |
| 대화 | 720 6091 |
| 락 | 5793 9211 |
| 마포 | 7279 2479 |
| 맛집칼국수 | 0821 1096 3483 |
| 명가면옥 | 0254-849 3571 |
| 면의전설 | 521 0230 |
| 명가면옥 | 2751 0800 |
| 미가 | 0818 85 8026 |
| 미스터 박 | 5140 1142 |
| 버까시 서울 | 8895 7604 |
| 베다니1호점 | 9318 0458 |
| 베이징 | 0254-837 0242 |
| 보신명가 | 789 0220 |
| 보신명가 | 0254-848 4111 |
| 본가 | 739 6229 |
| 삼원가든 | 2988 9505 |
| 설악추어탕 | 722 1852 |

| | |
|---------|----------------|
| 소래포구 | 8990 5051 |
| 씨티서울 | 5289 7506 |
| 아랑22 | 5140 1245 |
| 아리정 | 739 6549 |
| 우장군 | 725 6181 |
| 유미 | 720 7464 |
| 청기와 | 726 1924 |
| 청담가든 | 0815 7342 5802 |
| 청해수산 | 527 8721 |
| 취연 | 725 1276 |
| 토박 | 725 1135 |
| 하누 | 725 5042 |
| 한강 | 7278 7802 |
| 한민족 | 725 2688 |
| 한솔 | 5290 3417 |
| 이가네 | 6669 5500 |
| 한옥 | 0254-385 588 |
| 강산 | 2452 0569 |
| 깜닭 | 4584 5837 |
| 다미 | 4585 0040 |
| 대장금 | 0816 885 956 |
| 마포갈매기 | 0812 9313 9503 |
| 명가면옥 | 8990 4552 |
| 미스터 사시미 | 4585 3484 |
| 미추홀 | 6583 1472 |
| 서울 | 4585 4454 |
| 설악추어탕 | 2937 5435 |
| 송가네삼계탕 | 4585 4422 |
| 야래향 | 4584 8476 |
| 황금밥상 | 4585 3402 |
| 감미옥 | 5579 4612 |
| 강나루 | 5576 8222 |
| 강촌 | 5579 3681 |
| 꼬꼬따리아 | 0254-39 4255 |
| 대가야 | 547 5511 |
| 명가면옥 | 552 2745 |
| 산들 | 5579 5821 |

| | |
|--------|----------------|
| 상하이 | 5573 5550 |
| 서울일식 | 546 0840 |
| 아리수 | 0254-781 0059 |
| 알리사 | 0254-60 1430 |
| 오리랑장어랑 | 5577 6457 |
| 우리들 | 552 4047 |
| 조선민물장어 | 5573 3308 |
| 종가레스토랑 | 551 3273 |
| 청기와 | 0858 1377 3388 |
| 체어맨 | 5577 8585 |
| 태능갈비 | 7055 0888 |
| 테라스 가든 | 8493 9321 |
| 한마당 | 5577 6770 |

●신문

| | |
|------------|-----------|
|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 520 7207 |
| 데일리코리아 | 725 7447 |
| 조선일보 | 5290 7388 |
| 중앙일보 | 7590 8308 |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Contact :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www.ichthusschool.com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 |
|--------------|------|------|
| 한국일보 | 769 | 1081 |
| 한인포스트 | 4586 | 9199 |
| 일요신문 | 452 | 5655 |
| 타임인도네시아 | 5028 | 4996 |
| JAKARTA POST | 530 | 0476 |
| 자카르타경제일보 | 5290 | 0117 |

●안경원

| | | |
|--------|-----|------|
| 눈사랑안경원 | 723 | 5360 |
| 시티안경원 | 726 | 5009 |

●여행사

| | | |
|-----------------|------|-----------|
| 나래여행 | 5296 | 0749 |
| 하나족자트래블 | 0274 | 887 488 |
| 굿데이투어 | 4586 | 0598 |
| 그린관광 | 798 | 3322 |
| Red Cap | 5797 | 3397 |
| Rodem Tour | 4587 | 8833 |
| 마타아리 여행사 | 521 | 2212 |
| 부미관광 | 7279 | 0011 |
| 비자여행 Malaysiaro | 603 | 9274 1780 |
| 솔로몬투어 | 0813 | 1934 1000 |
| 싱가폴투어(비자) | 2903 | 6647~50 |
| 스카이투어 | 391 | 1381 |
| 우리투어 | 794 | 0422 |
| 153 TOUR | 5720 | 153 |
| 코리아트래블 | 230 | 3116 |
| 코인관광 | 720 | 7230 |
| 하나관광 | 520 | 2450 |
| 호산여행사 | 691 | 3602 |
| HAPPY TOUR | 532 | 7970 |
| Inko Batam(바탐) | 0778 | 462 500 |
| 사랑투어 | 3192 | 4449 |

●인니어통역/번역

| | | |
|----------|-----|----------|
| Mrs. Lee | 021 | 743 2687 |
| CITRA | 781 | 7771 |

●인터넷

| | | |
|-------------------|------|------|
| HANASTAR INTERNET | 2270 | 8282 |
| S-Net | 7080 | 7886 |

●인테리어

| | | |
|------------|------|-----------|
| H2 Stuff | 4586 |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 0821 | 2564 1777 |
| | 7590 | 6767 |
| Living A&I | 7278 | 0704 |
| 로만인테리어 | 720 | 4851 |
| 아이니인테리어 | 0812 | 1928 5578 |
| INNOMATE | 7919 | 2006 |

●운송 해운 이삿짐

| | | |
|-------------------|------|------|
| 소명통관 | 4585 | 9283 |
| 센다이 이주화물 | 8770 | 6361 |
| 아네카 트란스 | 520 | 4181 |
| 트란스 우따마 | 829 | 6218 |
|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 5591 | 5770 |
|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 2902 | 3838 |
| CARGO PLAZA | 831 | 7779 |
| DHL | 7919 | 6677 |
| FIRSTINDO EXPRESS | 5296 | 0024 |
| PANTOS LOGISTICS | 8998 | 2855 |
| HAES IDOLA CARGO | 8591 | 8488 |
| HANINDO EXPRESS | 252 | 5123 |
| KORNET LOGISTICS | 8379 | 3455 |
| QCN | 7884 | 1550 |
| Wings Global | 4585 | 8053 |
| ZIMMOAH | 2937 | 5670 |
| WIKASA | 8379 | 1935 |

●자동차 정비소

| | | |
|------------|-----|------|
| 벵켈 코리아 모터스 | 885 | 4034 |
|------------|-----|------|

●증권/보험

| | | |
|----------|-----|-----------|
| 삼성화재 | 021 | 806 22000 |
| 우리코린도증권 | 797 | 6210 |
| 클레몽종합금융 | 797 | 6363 |
| 메리츠코린도보험 | 797 | 6242 |
| 키움증권 | 526 | 1326 |
| KDB 대우증권 | 515 | 1140 |
| LIG 손해보험 | 391 | 3101 |

●컨설팅

| | | |
|---------------|------|-----------|
| 럭키비자 | 0813 | 1133 2122 |
| 글로벌컨설팅 | 7280 | 0524 |
|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 8990 | 0088 |
| 두왕컨설팅 | 520 | 7153 |

| | | |
|----------------|------|------|
| 새천년컨설팅 | 5290 | 0040 |
| 우리컨설팅 | 7918 | 4239 |
| 컨설팅 21 | 799 | 6182 |
| 퓨릭컨설팅 | 5596 | 3213 |
| 한생컨설팅 | 5290 | 0670 |
| KMAQA (ISO인증원) | 573 | 1576 |

●컴퓨터, IT

| | | |
|---------------------|------|---------|
| 대인정보시스템 | 230 | 5533 |
| 레드망고(PC방) | 4584 | 4186 |
| 리콤컴퓨터 | 725 | 1606 |
| 컴퓨터 원 | 5576 | 5228 |
| 지텍컴퓨터 | 5696 | 7001 |
| 하나로정보통신 | 9260 | 0950 |
| 한비텔 | 8379 | 1144 |
| 인도웹 www.indoweb.org | 0811 | 8889609 |

●택시

| | | |
|-------------|-----|------|
| SILVER BIRD | 798 | 1234 |
| BLUE BIRD | 794 | 1234 |

●하숙

| | | |
|--------------|------|-----------|
|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 0813 | 14157581 |
| 가딩 홈스테이 | 9661 | 5877 |
|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 0858 | 14422900 |
|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 0858 | 13413222 |
|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 0813 | 15149978 |
| 교민 하숙 | 0816 | 163 5558 |
| 나인비즈니스 하숙 | 9940 | 5005 |
| 동지 하숙 | 3608 | 9316 |
| 리뽀찌까랑 하숙 | 0812 | 1066 7757 |
| 레저 게스트하우스 | 0811 | 143 437 |
| 모나리자 | 8990 | 9570 |
| 모이하숙 | 0878 | 8515 1653 |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 0813 | 8059 1625 |
| 세명 하숙 | 0852 | 1757 5525 |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 0821 | 1336 1111 |
| 소망 하숙 | 0813 | 1724 9911 |
| 쉼터 하숙 | 726 | 8775 |
| 시내중심게스트하우스 | 0815 | 17803680 |
| 이모네 하숙 | 0818 | 964 946 |
| 인다 게스트하우스 | 0822 | 6074 8228 |
| 엘지 게스트하우스 | 0812 | 100 7135 |
| 엘림 게스트하우스 | 0815 | 181 3122 |
| 위자야게스트하우스 | 0815 | 1024 8888 |
|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 0817 | 127 887 |
| 풀하우스 | 0818 | 901 609 |
| 한발 | 830 | 9990 |
| 한올타리 | 739 | 5841 |
|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 723 | 8302 |
| 현대 하숙 | 0818 | 795 787 |
|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 0813 | 8822 7783 |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989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포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워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본 점(수출/무역)
 |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 HP.0816-873-176
 |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 HP.0816-1390-333
 | Tel. 021-7278-8327 HP.0888-110-2022 |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 | | |
|------|----------------|--------|
| 최 병우 | 0811-956-227 | 회장 |
| 강 희중 | 0816-798-221 | 검도협회장 |
| 곽 봉규 | 0815-410-4167 | 탁구협회장 |
| 김 송정 | 0816-716-293 | 볼링협회장 |
| 김 태화 | 0811-188-2938 | 스쿼시협회장 |
| 방 진학 | 0811-198-282 | 태권도협회장 |
| 배 응식 | 0811-965-2775 | 용무도협회장 |
| 이 광희 | 0811-998-186 | 축구협회장 |
| 정 성원 | 0817-785-348 | 테니스협회장 |
| 한 현봉 | 0811-111-5800 | 골프협회장 |
| 이 기홍 | 0819-812-507 | 사무총장 |
| 성기채 | 0815-1070-2424 | 사무차장 |

발 리 (지역번호 0361)

| | | |
|----------------------|-----------------|--|
| ●한인단체 | | |
| 재발리한인회 | 0812 3793 9452 | |
| ●항공 | | |
| 대한항공(KAL) | 768 377 | |
| ●종교단체 | | |
| 한인교회 | 462 222 | |
| ●슈퍼마켓 | | |
| 한국슈퍼마켓 | 281 929 | |
| ●여행사 | | |
| B.J.C TOUR | 284 365 | |
| BALI INDA TOUR | 286 905 | |
| BALI DAMAI TOUR | 764 864 | |
| BALI HARMONY TOUR(A) | 744 1815 | |
| BALI STAR TOUR | 868 8287 | |
| BALI TAP TOUR | 860 4977 | |
| MANGOCAKE | 745 4229 | |
| FIN DONGHWA TOUR | 847 1966 | |
| DREMLAND TOUR | 745 1961 | |
| DARMA BALI TOUR | 848 0030 | |
| KOURUS TOUR | 744 7200 | |
| M. TOUR MAIL | 725 800 | |
| NUSA TOUR | 285 122 | |
| ITOUR | 261 105 | |
| MATAHARI KOREAN TOUR | 703 479 | |
| MARIN TOUR | 224 010 | |
| PDTOUR | 763 845 | |
| PENJOR TOUR | 727 800 | |
| P.B.B TOUR | 288 999 | |
| U2 Bali Holiday TOUR | 710 731 | |
| T.N.B TOUR | 808 9000 | |
| UNION TOUR | 745 4419 | |
| SUDINA TOUR | 744 2121 | |
| SPIRIT TOUR | 780 2340 | |
| KOREA TRAVER | 756 899 | |
| V.I.P. 여행사 | 762 090 | |
| WORLD RESORT CENTER | 778 218 | |
| WEDDING TOUR | 745 3650 | |
| ●식당 | | |
| 그릴하우스 | (0361) 710 374 | |
| 꼬끼레스토랑 | 770 256 | |
| 대장금(SIMPANG SIUR) | 889 0870 | |
| 대장금(SANUR) | 918 1888 | |
| 라리스 | 727 405 | |
| 부가 | 805 1212 | |
| 서울가든(부두굴) | (0362) 342 9220 | |
| 한일관 | 727 250 | |
| 인터넷서날라온지 | 759 368 | |

●서비스업

| | |
|-----------------------|----------|
| - 빌라, 호텔 | |
| BEVERLY HILLS VILLA | 848 1800 |
| BALI DIARY HOTEL | 499 282 |
| DREAM LAND VILLA | 708 199 |
| OCEAN BLUE BALI VILLA | 776 700 |
| MAN&WOMAN VILLA | 847 6521 |
| LAVENDER HOTEL | 752 961 |
| VILLA DOWNTOWN | 736 464 |
| VILLA NAMASTE | 755 755 |
| AISIS VILLA |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 | |
|--------------------------|---------------|
| I.N.L | 720 999 |
| INKO CLUB | 722 431 |
| HALLO BALI | 723 593 |
| SIMPANG SIUR | 761 313 |
| AVENUE | 762 327 |
| AISIS (NUSADUA) | 770 256 |
| AISIS (SANUR) | 287 257 |
| COLAGEN BUTY SHOP | 885 1770 |
| CLUBBER | 766 340 |
| BALI FINE | 852 8881 |
| POLO SHOP(AIRPORT) | 759 368 |
| BALI TEGEHE AGUNG | 298 643 |
| CLEAN & GREEN | 289 070 |
| SUN JEWELLERY | 761 537 |
| SINAR MUTIARA BALI | 462 061 |
| BALI DEWATA | 285 501 |
| CHIPPENDALE FURNITURE | 812 570 |
| SAMMA | 815 310 |
| BALI PROPERTY CONSULTING | 264 086 |
| SHINY HAIRSHOP | 766 304 |
| 카리스(특피전문백) | 0811 998 1637 |

반둥 (지역번호 022)

| | |
|-----------|----------------|
| 반둥 아름다운교회 | 201 3184 |
| | 0813 2233 0119 |
| 반둥 반석교회 | 201 5022 |
| 한국인교회 | 201 4052 |

●식당

| | |
|--------|------------|
| 뉴캐슬식당 | 201 5007~8 |
| 명가레스토랑 | 200 7363 |
| 코리아하우스 | 203 1626 |
| 한국관 | 204 3069 |

●서비스업

| | |
|---------|----------------|
| 뉴캐슬사우나 | 201 5007~8 |
| 반둥렌트카 | 0858-1111-4000 |
| 반둥한인부동산 | 0858-1111-4000 |
| 반둥컴퓨터 | 0821-2222-6000 |



긴급전화번호

| | | |
|---------------|-----------------------------------|------------------------------------------------|
| 경찰 | POLICE (Polisi) | 112 |
| 범죄 및 도난 신고 | | 110 |
| 소방서 (화재신고) |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 113 |
| 응급차 | AMBULANCE (Ambulan) | 118 119 |
| 민간구급차 서비스 | PRIVATE AMBULANCE SERVICES |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 | |
|----------------------------|---------|
| 시내..... | 108 |
| Directory Service(City) | |
| 시 외..... | 105,100 |
| Directory Service(Suburbs) | |
| 국제전화..... | 001,008 |

■교통기관

| | |
|---------------------|-------------------|
|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 021)5505307/8/9 |
| Airport Information | 550 5179 |
|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 021)7917 1234 |
| (24시간 접수) | |
| 고속도로 정보..... | 801 |
| Toll Road | |
| 교통사고..... | 118, 021)527 5090 |
| Traffic Accidents | |
| 열차시간안내..... | 121 |
| Station Gambir | |
| Station Kota..... |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 | |
|--------------------------|----------------------|
| 한국대사관..... | 021)2967 2555 |
| 영사과..... | 021)2967 2580 |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021)521 2515 |
|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 | 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 | |
|-----------------------|----------------|
| 대한항공(시내)..... | 021)521 2180 |
| (공항)..... | 021)550 2389 |
| 가루다(Call Center)..... | 021)2351 9999 |
| | 0804 1807 807 |
| 아시아 항공(시내)..... | 021)5721 381~3 |
| (공항)..... | 021)5591 32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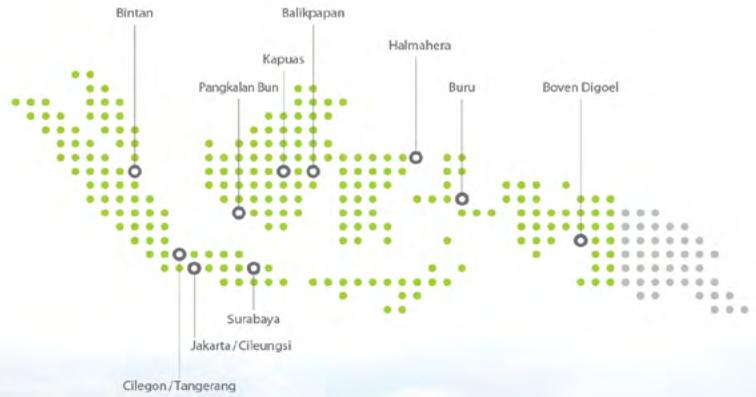
■우편

| | |
|-----------------|--------------|
|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 | |
|--------------|--------------|
| 전기고장 문의..... | 123 |
| 전화고장 문의..... | 147 |
| 수도고장 문의..... | 021)57986555 |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한마음으로 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미래

25년간 지켜온 KMK의 소망입니다.

보다 더 밝은 내일을 함께

HUMAN TOUCH MANAGEMENT



KMK GROUP



K1



K2



HTM(K5)



GFI



RCI



INNOX

No.1 RETAILER IN ASIA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는 글로벌 유통기업, **롯데마트**
인도네시아에서도 롯데마트는 대한민국 유통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HYPERMARKET (14 STORES)

JAKARTA: • Gandaria City (021) 29053060 • Ratu Plaza (021) 7394555 • Kelapa Gading (021) 4585511 • Mal Kuningan City (021) 30480888 • Fatmawati (021) 7591 0837 • LOTTE Mall Taman Surya (021) 29501 300 | TANGERANG: LOTTE Mall Bintaro (021) 29310777 | CIMONE: Cimone City Mall (021) 29170235 | BEKASI: Mal Bekasi Junction (021) 88348885/88344681 | BANDUNG: Mal FestivalCityLink (022) 6128 500 | MAKASSAR: Mal Panakkukang (0411) 423445 | MEDAN: Mal Centre Point (061) 80501303 | SOLO: Mal The Park (0271) 7891250 | SURABAYA: Marvel City (031) 99440510

WHOLESALE (27 STORES)

JAKARTA: • Pasar Rebo (021) 8404090 • Kelapa Gading (021) 4523811 • Meruya (021) 5857101 | BEKASI: Bekasi (021) 82428818 • Cibitung (021) 8980678 • Cikarang (021) 89101018 | TANGERANG: • Alam Sutera (021) 5399660-61 • Ciputat (021) 74700140 • Jatake (021) 29329950 | SERANG (0254) 8241945 | BOGOR (0251) 7564700 | BANDUNG (022) 7503570 | CIREBON (0231) 8333024 | TASIKMALAYA (0265) 7293333 | SEMARANG (024) 6733535 | SOLO (0271) 740319 | YOGYAKARTA (0274) 4462616 | SURABAYA: • Masprip (0821) 32537174 • Sidoarjo (031) 8532244 | BALI (0361) 723222 | MEDAN (061) 8470010 | PEKANBARU (0761) 572215 | PALEMBANG (0711) 379623 | BANJARMASIN (0511) 3265450 | BALIKPAPAN (0542) 8879523 | MAKASSAR (0411) 832813 | BATAM (0778) 4803800

SUPERMARKET (2 STORES)

JAKARTA: La Codefin Kemang (021) 7182889 | BANDUNG: Bandung Electronic Center (022) 20510044